

#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高 定 佑

## 目 次

- |              |                     |
|--------------|---------------------|
| I. 序 言       | IV. 屈原의 楚辭 研究       |
| II. 生涯와 流配背景 | V. 鄭蘊 流配文學의 文學史的 位置 |
| III. 作品考察    | VI. 結 言             |

## I. 序 論

### 1. 研究目的

壬辰亂(1592) 이후부터 英·正祖 직전까지의 조선 중기는 개국 이래 미증유의 外侵으로 굳건했던 朱子學的 질서체계에 내부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다. 이 시기는 朱子學的 통치이념이 지속되면서도 實學的 기운이 태동하였으며, 文學的인 方面에서도 脫朱子學的 文學觀이 時等を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sup>1)</sup>. 宣祖 5년 李浚慶의 遺割問題로 벌어진 少壯派(李珣派)와 老壯派

1) 전형대의3인, 《한국고전시학사》, 서울, 흥성사, 1986, PP. 28~29.

(李浚慶派)의 대립은 당쟁의 불씨가 되어 166년이란 세월 동안 당파 싸움이 계속된다.<sup>2)</sup>

桐溪 鄭蘊이 살았던 시기(宣祖 2년 : 1592)~仁祖 19년 : 1641)는 당론이 가장 극심한 시기였다. 임진란 이후 大·小北의 분열로 세력이 강해진 北人은 光海 淸을 추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절정기를 맞이했다. 혼란한 당쟁시기에 있어서 士大夫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君王으로부터 미움과 排斥을 당해 王都에서 멀리 邊方이나 級海孤島로 流配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제주도는 朝鮮朝 이후 政治的 狀況과 결부되면서 그 歷史的 狀況은 유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만큼 特徵的이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입지적 조건과 장래가 至難하여 유형수의 濟州入島는 生死가 달린 문제였다. 朝鮮時代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王族, 政治人, 官吏, 學者를 비롯하여 京中의 범죄자 및 북방 국경지방의 越境犯에 이르기까지 유배지로서 象徴的이며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 왔었다.<sup>3)</sup>

제주도 五賢<sup>4)</sup>의 한 사람인 鄭蘊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이 폐위, 살해됨에 그 부당함을 상소하다가 제주도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그는 모순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대부의 신분으로 중간하였고, 10년이란 긴 유배생활을 창작적 계기로 삼아 많은 流配漢詩를 남겼다.

당쟁이 치열하던 선조 이후 사대부들은 때로는 집권도 하고, 때로는 반대당에 의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士大夫, 文人, 學者들은 대개 억울한 죄명으로 벽지고도로 유배를 당하는가 하면 그 곳에서 3년, 5년, 또는 종신을 얻매여 살며 유배된 자신의 울분을 時文을 통하여 표

2) 李建昌, 《당의통략》, 世界敎養思想全集5, 乙酉文化社, 1972. PP. 3~6.

3) 梁淳珪, “濟州流配文學序說”, 《재대논문집》 제10집, 1978. P. 663.

4) 五賢, 15C에서 16C까지 國朝의 名賢으로서 冲庵 金淨(成宗 17년 1486~中宗 16년 1521), 圭岩 宋麟壽(成宗 18년 1487~明宗 2년 1547) 淸陰 金尙憲(宣祖 2년 1570~孝宗3년 1652), 尤庵 宋時烈(宣祖 40년 1607~肅宗 15년 1689), 桐溪 鄭蘊(宣祖 2년 1569~仁祖 19년 1641)등 5人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중 冲庵, 桐溪, 尤庵은 中央政界에서 經論을 펴다가 流配되었고, 圭岩은 牧使로, 淸陰은 御使로 내도했던 선비들이다. 이들의 유덕을 추모하여 橘林書院에 배향하였다. (乾隆 5年 5月 報草瞻錄 般所 참조)

백한 바 컸다는 점에서, 당쟁이 문학에 끼친 영향이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름있는 가사, 기행록, 한시, 시조 등 대부분 유배생활과 관계 없는 것이 없으리만큼 조선시대 문학은 바로 黨爭의 文學<sup>5)</sup>이라 할 수 있으니 量的, 質的으로 國文學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本 研究는 鄭蘊의 流配漢詩를 연구함으로써 그의 文學性을 고찰하고, 國文學上的 위치를 설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流配文學의 定義

귀양이란 歸鄉에서 온 말로 고려시대부터의 형벌의 하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처음에는 放逐鄉里의 뜻으로 쓰다가, 후세에 와서는 徒配, 流配, 竄配, 定配의 뜻으로 정의되고 있다.<sup>6)</sup> 곧 歸鄉은 致仕후 鄉里로 돌아가는 '歸鄉'의 뜻과, 죄명을 쓰고 遠地로 放逐되는 '流配'의 뜻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현재는 전자보다 후자 즉 流配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先行 研究者들의 流配文學의 定義를 살펴보면,

1) 당쟁이 치열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官海風波는 높아 <中略> 政客들은 학자들은 대개가 귀양을 가서 工夫를 하였고 配所에서 文學을 일삼아 여기에 이른바 配所文學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7)</sup>

2) 君王에게 유배를 받아 생활조건이 險惡한 僻地나 落島에 유배되어 配所에서 春風秋雨 그들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sup>8)</sup>

3) 유배의 체험과 또는 그것을 소재로 한 모든 작품 <中略> 그러나 아무리 謫所에서 창작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의 소재라든가 또는 주제가 유배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야 유배문학이 될 것이다.<sup>9)</sup>

5) "국문학과 당색관계", 《文湖》창간호, 전국대국어국문학회, 1959. P. 62.

6)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館, 1971. P. 383.

7) 趙潤濟, 《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55. PP. 336~337.

8) 徐東鉉, "流配文學攷", 《文湖》창간호, 1960. P. 18.

9) 張德順, 《口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P. 361.

4) 유배를 당한 사람이 적소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당한 사실을 또는 스스로 상상하고 가상해 본 허구를 문예적으로 작품화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유배 그것을 제재로 제3자가 상상과 추리로 유배의 情況을 文學的으로 그려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前者를 직접적 유배문학이라 한다면 후자를 간접적 유배문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sup>10)</sup>

5) 유형수 자신이 당론이 치열할 때 仕官하는 몸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 또는 모략과 事實無根의 참소에 의해 불운의 유배를 당하여 자기 고향과 화려한 벼슬살이밖에 모르는 처지에서 꿈에도 상상 못해 본 絶島나 혹은 還境으로 옮겨 體念, 思索의 時間을 통하여 人生과 自然을 眞摯하게 관조해 보기도 하고, 異國의 情緒, 懷鄉의 情, 他鄉의 자연과 風習見聞 등을 소재로 하여 謫客만이 지니고 있는 獨特한 심리와 정서가 가미되어 이루어진 것과 또는 陪行者 자신의 作인 것처럼 戀君의 衷情, 故國에의 懷抱, 親族에의 戀慕의 情을 寫實的 描寫한 작품이다.<sup>11)</sup>

6) 流配文學이란 유형수가 流配地에서 겪은 流配의 事實의 직접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작품을 流配文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朝의 유배문학은 주로 政治的, 時代的 狀況인 黨爭에 직면하여 敗北한 者가 政敵에게는 물론 君王에게 忌諱, 排斥당하여 유형수로서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것을 流配文學이라 말 할 수 있다.<sup>12)</sup>

7) 流配文學이란 유형수가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直接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을 文學化한 것이다.<sup>13)</sup>

10) 丁益燮, “流配文學小放”, 《无涯梁柱東 博士 華誕記念論文集》, 東國大出版局, 1964. P. 531.

11) 文璣植, “流配歌辭의 內容의 考察”, 《全南大語文論集》 1집, 1969, P. 203.

12) 梁淳琰, “朝鮮朝流配文學研究”, -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博士論文, 1982. P. 8.

13)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 三友社, 1976. PP. 59~60.

8) 流配文學이란 政治的으로 禍를 입어 君王으로부터 流配를 命받은 者가 유배지를 향하여 가는 移送過程, 流配地에서의 生活 그리고 正常人으로 復權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유배자가 보고, 듣고, 느끼며, 겪은 精神的, 感情的 內容과 그의 眼前에 展開되는 外的 狀況을 직접 또는 回想을 통하여 文學化한 것으로 文學的 價値를 지닌 記錄으로 規定지을 수 있다.<sup>14)</sup>

이상의 여러 견해 중에서 공통점들을 참고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作家는 君王으로부터 流配의 命을 받은 유형수라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둘째, 地域的 時間的인 면에서 유형수가 유배지를 향하여 가는 移送經路와 流配地에서의 生活, 곧 復權되어 마지막으로 流配地를 떠나기 이전까지로 제한한다. 셋째, 素材 및 狀況面에서의 流配者로서 겪는 精神的, 感情的 內容과 유배적 사실의 直接體驗을 文學化한 작품으로 제한한다. 곧 유배 문학이란 유형수가 유배지를 향하여 가는 移送過程과 유배지에서의 유배적 사실의 직접적 체험에서 느낀 감정적 내용 및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작품을 流配文學이라 規定지을 수 있다.

### 3. 研究方法 및 限界

黨爭에 휘말려 유배당하는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유배자 자신들의 울분과 자탄 그리고 별한의 심정을 다른 문학 장르를 통하여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압축된 漢詩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무릇 하나의 작품이 형성된 그 裏面엔 그 文學을 형성 할만한 精神的 狀態와 그런 精神狀態를 만들어냄에 있어 그 당시의 時代 環境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sup>15)</sup> 다시 말하면 文學作品은 작가가 처한 총체적 상황의 한 產物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모든 작품이 작가라는 주체와 분리될 수 없듯이 작가를 만들어낸 시대 사조와 사회를 떠나서는 문학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14) 金基東, “冲庵 金淨의 流配文學攷”, 慶熙大碩士論文, 1983. P. 5.

15) H·A·Tain, 《文學史의 方法》, 瀨沼茂樹 譯, 岩波文庫, 昭和 35년, P. 59.

따라서 本 研究은 桐溪 鄭蘊의 文集 「桐溪集」<sup>16)</sup> 가운데서 「桐溪集 卷1」을 중심으로 생애를 파악하고, 「桐溪集 卷2」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서 제주 流配 漢詩를 추출, 그 중 유배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는 작품 60수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文學作品을 분석 비교하여 그 文學性을 고찰하고 그것이 지니는 國文學의 位置를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 社會學的 方法論과 分析的 方法論 및 比較文學의 觀點에서 考察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生涯와 流配背景

### 1. 生涯

桐溪 鄭蘊은 宣祖 2년(1569)부터 仁祖 19년(1641) 사이의 유학자요 정치가이며 문인이었다. 이름은 蘊이요, 字는 輝遠이며 號는 桐溪로서 草溪 鄭氏이다. 아버지 進士 惟朗과 어머니 參奉 晉州 姜謹友의 女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鄭仁弘의 門下에서 受業하였다. 宣祖 20년(1587) 19세에 鄉試에 합격하고 坡平君 昭靖公 坤의 六世孫의 女 坡平 尹氏와 결혼하였다. 宣祖 39년(1606) 38세에 進士를 거쳐 光海君 2년(1610) 42세에 別科에 급제하였다. 光海君 6년(1614) 司諫院 正言으로 있을 때 永昌大君 처형이 人倫에 어긋났음을 상소하였다가 10년간 濟洲島에 圍籬安置된다. 仁祖反正 후 복귀하여 獻納, 大司諫, 副提學 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仁祖 14년(1636) 丙子胡亂이 일자 남한산성에서 金尙憲과 함께 斥和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正議 和議가 성립되

16) 《桐溪集》卷1:年譜, 《桐溪集》卷2:詩, 《桐溪集》卷3:記, 論, 序, 傳, 箴, 祭文, 跋, 文, 書, 《桐溪集》卷4:疏, 桶遺, 行狀, 《桐溪集》卷5:碑名, 墓碣(墓誌銘), 《桐溪集》卷6:附錄, 挽詩 《桐溪集》卷7:詩, 賦, 疏, 書, 《桐溪集》卷8:傳, 墓碣, 附錄, 記, 行狀, 序, 祭文, 《桐溪集》卷9:附錄.

자 자진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여 여생을 德裕山에 들어가 隱居하였다. 5년 후 仁祖 19년(1641) 73세로 他界하였다. 諡號는 文簡이다.<sup>17)</sup>

桐溪의 生涯를 「桐溪集 卷1」, 桐溪先生年譜를 중심으로 정치적 상황의 변모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1) 第一期 成長修學期(출생~19세) : 출생시부터 19세 鄉試合格時까지 學問修鍊過程.

2) 第二期 初期活動期(20~40세) : 壬辰亂의 발발과 임진란이 끝난 후 사적을 논하고 녹사제수 및 진사에 나가 활동한 시기.

3) 第三期 出仕, 流配期(41세~55세) : 光海君 1년(1609) 光陵參奉을 제수받아 出仕하고 司諫院 正言을 거쳐, 同王 5년(1613) 癸丑獄事때 副司直에 있으면서 永昌大君 사후 복직을 논하다가 濟州 大靜縣에 圍籬安置된 시기.

4) 第四期 後期活動期(56~69세) : 流配가 풀린 후 仁祖 2년(1624) 형조참판을 제수받은 시기부터 同王 15년(1637) 丙子胡亂 때 吏曹參判으로서 斥和論을 주장하다가 다음해 和議가 이루어지자 자진을 기도한 시기.

5) 第五期 隱遁期(70세~73세) : 자살 실패 후 崇明主義로서 벼슬을 버리고 德裕山에 은거하다가 他界할 때까지의 시기.

#### 1) 第一期 成長修學期

桐溪는 宣祖 2년(1569) 2월 安陰古縣 嶧洞里(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다. 5·6세가 되면서부터 이미 큰 뜻을 품어 아이들과 더불어 竹馬놀이를 할 때 자칭 小谷生大人이라 했다. 이때부터 마을 노인들은 그를 가리켜 大人이라 불렀다. 7·8세가 되어 학문을 익히는데 말이 익숙치 못하여 능히 외지 못하나 복습을 하는데 괴로움을 참고 종일 쉬지 않았다 한다. 얼마 안되어 文理를 통하니 아버지 嶧陽府君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이 아이의 문리는 비유컨데 새벽창이 점

17) ① 安種和, 《國朝人物志 全》, 明文堂, 1977. PP. II 95~96.

②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편,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67, P. 838.

③ 姜敷錫, 《典故大方》, 漢陽書院, 1914, P. 14. 16. 등 참조

점 밝아오는 것 같다<sup>18)</sup>하였다. 또한 일찌기 籀字로서 글을 지어 가로되 울타리를 막으니 사람이 위대한 바가 되어 마침내 사람이 적절히 쓰이는 재주를 안다 하였다. 이렇게 그는 어려서부터 時文에 뛰어났으며 정직하고 근면하였다.<sup>19)</sup>

桐溪는 부모가 가르치는 바를 받들어 반드시 순종하였으며 털끝만큼도 거짓이 없었으니 부모가 기뻐하였다. 또한 아침에 아버지 陽府君이 서당을 열자桐溪는 동생과 함께 배향하고 계단과 뜰 청소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정직 근면함과 孝行을 어려서부터 지니고 있었다. 宣祖 16년(1583) 15세에 처음 葛川 林先生이桐溪를 대하여 그의 소질이 밝음과 원대함을 칭찬했다. 이때桐溪는 結史, 文詞에 통관하였으며 나날이 발전하니 칭찬하는 소리가 드높았다. 정신과 안색이 준엄, 깨끗하였으며 행동이 엄하고 言語가 簡重하여 종일 위태로이 끊어앉아 책을 대하니 벼들이 조심하고 경탄하였다 한다.<sup>20)</sup>

宣祖 20년(1587) 19세에 坡平君 昭靖公坤의 六世孫 尹氏를 맞아 결혼하고 그해 鄉詩에 합격하였다.

## 2) 第二期 初期活動期

宣祖 25년(1592) 4월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따라 咸陽疎會다. 초에 임금이 피난갔다는 소식을 듣고 悲憤하여 울음을 이기지 못했다. 同王 26년(1593) 25세에 글을 지어 天兵을 맞아 백성과 임금 구할 일을 여러 음에 통문했다. 同王 28년(1595) 27세에 荒田說을 지어 마음을 다스리고 깨우치는 일을 삼았다. 同王 29년(1596) 12월 부친 상을 만났으나 슬퍼할 여유도 없이 나라의 사태가 위급해졌다. 다음해 母親을 모시고 난을 피해 다녔는데, 어머니를

18) 《桐溪集》卷I 桐溪先生年譜, p. 1, 嶧陽府君稱之曰此見文理譬如曉窓漸明.

19) 上揭書, p. 1-2, 嘗以籀作句曰籀蔽 常爲人所特人知其終爲適用之地 先生於父母所教奉承必順 無毫欺隱父母悅之怒責不及 嶧陽府君日夙興展祠堂先生與李氏盥洗以從奉香火掃埽庭未嘗怠慢…

20) 上揭書, P. 2, 林先生藻鑑素明每見 期以遠大又賢其所製贊美之曰他日汝功不但科第面止 是時先生通貫經史文詞日進 已有有聲稱神 采埃整制方嚴言語簡重經日危坐對卷儼流威敬慢之.



어린아이 돌보듯 습기와 추운 곳은 피해 다녔으며, 구걸하여 어머니를 모시되 굶주림과 배고픔에도 때를 잃지 않았다.<sup>21)</sup> 또한 모친이 나이 60이 넘어 본래 병이 있었는데 流籬하는 동안 桐溪의 지극한 孝誠으로 병을 없애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선조 32년(1599) 2월에 부친상을 마치고 형과 함께 모친을 봉양하였다. 經史를 읽으며 집안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니 비록 “簞瓢囊空冠衣弊缺” 하여도 편안하기만 했다. 先親이 일찌기 嶧川書院을 지어 藏修之所를 삼으니 桐溪가 날마다 서당에 나가 학업을 닦았다. 이때의 심경을 읊은 詩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紫扉閒向碧溪開	사립문 한가로이 벽계로 열었으니
松老庭空月自來	송로 빈뜰에 달이 스스로 찾아드네
獨對明窓舒券秩	외로이 明窓을 대하여 책을 펴니
巍然要就聖賢栽 <sup>22)</sup>	모름지기 나아가 성현서 보네

桐溪의 학문은 四書에 근본을 두고 心經近思錄, 孝寧文文集 性理文全 등에 이르고 있다. 南冥의 제자였던 鄭仁弘의 門下를 왕래하였는데, 鄭仁弘 또한 桐溪를 공경하여 중히 여겼다.

同王 37년(1604) 36세에 道內 많은 선비와 더불어 상소를 들고 上京하여 五賢에 從事할 일을 청했으며 종사 崔暉과 더불어 亂後事路를 논하고 錄事를 제수받았다. 同王 39년(1606) 38세에 進士에 나가 2등으로 합격하였다. 光海君 즉위 원년(1607) 40세에 마을 사람들이 고지에 응해 桐溪의 학행을 薦舉하였다.<sup>23)</sup> 이렇게 第二期는 壬辰亂부터 宣祖가 승하하기까지의 시기로서 鄭蘊은 亂을 겪으면서, 두 차례 상소를 올리고 亂後 사적을 논하였으며, 綠事를 제수

21) 上揭書, P. 4. 時倭賊復動流離顛沛之中執喪制惟 謹保護母夫人如嬰兒露處時則 盡收 衣禽上覆傍遮俾免 寒凜所 遇間里見先以故 母夫人飢鉤末嘗失時

22) 上揭書, P. 4.

23) 上揭書, P. 5. 薦書曰 揆履安詳學行精備宇死善道始終不渝

받았다. 또 進士에 나아가 활동한 시기로서 桐溪가 정계진출의 활발한 징조를 보이는 활동 준비기간이라 하겠다.

### 3) 第三期 出仕, 流配期

光海君 2년(1610) 3월 奉慈殿參奉을 제수받고, 그 해 10월 別科에 급제하였다. 同王 3년(1611) 11월 司諫院 正言으로 移拜되었으며 長啓을 올려 慶運宮 옮기는 일을 정지하도록 청했다. 桐溪는 홀로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遞職되어 鏡城判官으로 좌천되어 官職을 사직하고 北行하였다. 同王 4년(1612) 10월 44세에 功勳있는 선비로 기록되어 부름을 받아<sup>24)</sup> 奉列大夫掌樂院 僉正知製教를 제수받았다.

同王 5년(1613) 45세 癸丑 4월 永昌大君 獄事가 일어났다. 鄭蘊은 聖節使에 參禮하였다가 탄핵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鄭仁弘과 더불어 永昌大君의 일을 의논하였다. 그 해 7월 副司直을 제수받고 이어 侍講院弼善兼春秩館, 編修官에 제수되었다. 同王 6년(1614) 2월 鄭沆을 베이고 永昌大君 位號를 復位시킬 것을 청했다.<sup>25)</sup> 兩司가 함께 桐溪를 論罪하여 按律을 청했다. 그 해 3월 옥에 갇혔다가 6월 왕의 문초를 당하고 7월에 大靜縣 安置의 命을 받았다.<sup>26)</sup> 이후 10년 동안 鄭蘊은 千辛萬古의 流配生活을 겪으면서 梅, 松, 竹, 菊 등을 심어 四友로 삼고 때로는 막대 짚고 소요하면서 시를 읊기도 하였다.<sup>27)</sup> 이렇게 桐溪는 불운한 유배생활을 자신에 대한 성찰과 山林에 묻혀 자연과 인정을 느끼는 계기로 삼아 時人으로서의 자질을 표출하였다. 유배생활 10년 동안 가지고

24) 上揭書, P. 9. 光海以柳永慶當先王末年嘗謀不利於己置之法論 戊申上疎諸人功先生亦與焉

25) 光海君 6년(1614) 정월, 이때를 당해 노함을 품은 사람들이 날로 극심하여 역당으로써 밤낮으로 사찰하니 선생은 講院에 한달포 거처하면서 杜門을 잠그고 출입치 않았다. 이때 새로운 제비를 보고 시를 지었다. 新燕曰 江上飛任去來 / 洵河何事苦相猜 / 玄衣不是爭魚者 / 只解含泥向室回

26) ① 前揭書, (광해 6년, 1614, 46세), P. 15. 七月辛亥再供光海君特命大靜安置

② 《光海君日記》卷11. 6年. 甲寅 2月 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③ 《西宮日記》卷之下. 8卷, PP. 7~17.

27) 上揭書, P. 18. 養梅見冷藥 / 養松聞風聲 / 養竹蔭清陰 / 養菊燦落英

은 慶史 수백 권을 벗삼아 읽었으며, 대정현감이 적소에 서재를 지어 주었으므로 유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같은 謫居人 宋象仁(1569~1631), 李灑(1579~1624) 등과 함께 詩文으로 교류하였으니, 興學教化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중국 성현의 행적을 적은 德辯錄<sup>28)</sup>을 만들어 自省齋하고, 매년 3월 원단에는 자경잠을 지어 수양에 힘썼다.

#### 4) 第四期 後期活動期

仁祖 1년(1623) 4월 유배생활에서 석방이 되고,<sup>29)</sup> 5월 司諫院 獻納에 제수되나 東宮을 폐하는 論議가 일어나자 사직하고 歸鄉했다. 윤 10월 조정에서 教書를 내려 특별히 通政大夫에 올리고 吏曹參議에 제수되었다. 同王 2년(1614) 정월에 李适의 亂이 일어나자 桐溪는 扈駕를 따라 公州에 갔다. 그 해 2월 亂이 평정되자 3월에 嘉善大夫로 제수되고, 이어 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7월 副司直에 이어 10월 司諫院 大司諫에 올랐다.

同王 3년(1625) 59세에 大司諫을 제수받고 이어 承政院, 都承旨와 經筵 參替官, 春秋館, 修撰官, 直提學, 尙瑞院正에 제수되자 상서원의 예가 아님을 진언하여 사양했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였다.

동왕 5년(1627) 57세에 金이 침입하니 仁祖가 탄 수레가 江都로 향하므로 나아가 자문을 올려 싸워서 지킬 것을 상소하고, 同知春秩館을 겸하고 漢城府 右尹 兵曹參判에 제수되었다. 同王 7년(1629) 吏曹參判에 제수되고 同王 8년(1638) 7월 모친상을 만나 居昌의 龍山에 모시고 초막을 지어 살았다.

同王 15년(1637) 정월 講和派 崔鳴吉의 주장을 배척하고 賣國하는 죄를 다스려 주기를 청했다. 남한산성이 위급하자 국론이 和議論으로 기울어 講和되

28) 德辯錄 서문, 德辯錄, 桐溪가 大靜縣 謫居 중 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중국 殷代부터 南宋時代에 이르기까지 聖인과 賢人 중에서 困厄과 우환이 있더라도 正直을 잃지 않고 참는 인성과 위태로움을 조절하고 깊음을 생각하는 본받을 인물 五十九人의 事績을 모아서 편집한 것.

29) 《仁祖實錄》卷1, 元年, 癸亥, 三月(헌남제수).

30) 《桐溪集》卷6 P. 42, 教書 教南原府使鄭澐 當永昌議罪之時 抗疎直諫波瀛絕島 生還於十年之後 允合褒將從勳一代賞加書 天啓三年閏十月十六日

므로 斥和를 주장한 鄭蘊은 비분강개하여 자신을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仁祖는 그의 忠義에 감복하여 즉시 御醫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고, 桐溪는 들것에 누워 고향에 돌아와 支石에 거처하였다.<sup>31)</sup>

5) 第五期 隱遁期

인조 16년(1638) 70세에 德裕山에 들어가 隱居하였으며<sup>32)</sup> 고향 嶺南某里에 돌아가 草屋를 지어 鳩巢라 이름짓고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 同王 17년(1639) 겨울 齒落歎詠菊을 지어 노병으로 쇠약한 자신을 위로하였다.<sup>33)</sup> 同王 18년(1640) 72세 때 貞夫人 윤씨가 죽자 품비병으로 장례를 보지 못하고 동생집 바깥채에 머무르다가 同王 19년(1641) 2월 “病中吟” 一絶을 지었으며<sup>34)</sup>, 그 해 6월에 他界한다. 장남 昌詩 집에 빈소가 마련, 8월 禮曹正郎 李惟達이 왕명을 받들어 제사지냈다. 同王 20년(1642) 정월 主谷에 장사지냈으며, 3월 龍門書院 鄭文獻公廟와 咸陽 蓋溪書院 別祠에 配享되었다.

孝宗 2년(1651) 資憲大夫, 吏曹判書, 知經筵, 義禁府事, 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世子左賓客을 내렸다<sup>35)</sup>. 同王 3월 乙未에 七言絶句 一首를 내리니<sup>36)</sup> 同溪 家廟에 실었다.

濟州에서는 그의 유덕을 추모하여 肅宗 8년(1682) 橋林書院에 五賢의 한 사

31) 支石에 거처하면서 스스로 自歎하여 이르되 吾不得死於南漢以答 國恩何忍供 賦稅享妻子之樂自與平人齒乎遂取窮僻爲 遜藏之所有偶吟詩曰 揮刃初期一死邁 如何殘命尙順然 仲連高潔終難效 元亮田園司省愆

32) 前揭書, P. 55. 春入某里 某里即德裕南 麗樹木 翁鶴人 烟隔絕自古爲一空谷也 先生移自支石縛草爲舍築土爲床名之日某里鳩巢…

33) 上揭書, P. 5. 先生年病 雖深雅齒尙無恙及人山泉水冷冽不數年齒牙盡落

34) 上揭書, P. 58. <病中吟>, 一病支禽臥九旬/不知梅柳已爭春/死生朝暮何須歎 /愧作無稱沒世人

35) 諡號를 文簡公으로 내리게 된 등기는 ① <桐溪集> 卷1, 桐溪先生年譜 P. 6, 諡法學好問曰文 正直無邪曰簡 前時建請者言 金尙憲 鄭蘊 賜諡. ② <宋子大全>, 丁酉封事 孝宗 8년(1657) 8월 16日.

36) 前揭書, P. 62. 日長山色碧嵯峨/鍾得乾坤正氣多/北去南來同一義/精金監石下 削磨

람으로 配享하고<sup>37)</sup> 憲宗 8년(1842) 李源祚 목사에 의해 大靜城內에 桐溪의 謫廬碑 세워졌다. 후에 吏이목사는 書堂境內에 松竹祠를 창건하여 享祀하였다.

## 2. 流配背景

朝鮮朝 일대를 통한 사회적 소란은 光海君 前後가 으뜸이라 하겠다. 光海君은 비록 충명하였으나 女樂과 游衍 몰두하면서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sup>38)</sup> 곧 즉위 후 嫡統王子 永昌大君을 옹립하려던 小北派 柳永慶, 金大夾, 李弘老 등은 竄逐되어 誅殺되었다. 小北의 沒落과 함께 大北의 독무대가 되고 유배되었던 李爾瞻 鄭仁弘 등은 赦免되었으며 영의정에 李元翼, 좌의정에 李恒福이 南人으로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실권은 대북이 장악하여 대북정권의 정치적 압력으로 光海君 2년(1610)에 臨海君을 殺害하고 光海君 5년(1613) 癸丑 4월에 七庶之獄의 誣獄으로 金梯男을 殺害하여 同王 6년(1614) 2월에는 8세의 어린 永昌大君을 江華島에서 蒸殺하였다<sup>39)</sup>. 이어 同王 7년(1615) 11월에는 綾昌君을 살해하고 永昌大君의 生母 仁穆大妃를 幽閉시키는 등 光海君이 폐위할 때까지 15년간 그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桐溪의 유배동기가 되는 永昌大君 사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光海君 5년(1613) 5월 4일 金梯男이 官爵削奪되고 同年 6월 1일 四小門 밖에서 死死되었다. 그후 조정에서는 가장 큰 禍根인 永昌大君을 처단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여 그칠 날이 없었다. 癸丑獄事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조정기 빗발치

37) 金錫翼, 《耽羅紀年》卷之三, 濟州, 旌義大靜篇 P. 63.

38) 《韓國文化史大系》10. 言語文學史(下),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P. 1310-1311. 〈青野曼輯〉, 이때 춘향전에 실린 〈金樽美酒玉盤佳肴〉와 대동소이한 名句도 이때 일을 풍자한 작품이다. 朔都司來京 有詩曰 清香昏酒千人血 佃切珍羞萬詩膏 濁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蓋以光海政亂 困也…

39) ① 《光海君日記》卷65. 5年. 癸丑. 4月 癸丑條, ② 《燃藜室記述》卷20. 徐甲甲이 親鞫에서 '金梯男 逆謀를 주장했고 永昌, 大妃와 內應했다' 라는 一世를 驚動시킬만한 誣告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徐甲呼友英子曰 我當承服矣 友英驚問則曰 渠殺吾母 我當殺渠之母 遂承服 飾言梯男同謀慈殿與聞之狀.

는 여론에 의해 永昌의 官爵은 삭탈되었다. 이어 그를 庶人으로 폐하고 성밖의 閭家에 보내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는 하루 빨리 禍根을 없이하여 宗社를 편안케 해야 한다는 論議가 대두되어 드디어 江華島로 유배를 보내었다.<sup>40)</sup> 同王 6년(1614) 2월에는 李爾瞻 등의 凶計로 강화부사 鄭沆에게 密命하여 永昌을 蒸殺하였다.<sup>41)</sup>

이 때 鄭蘊은 李爾瞻을 보고 8세의 童子가 어찌 역모를 알겠느냐고 하며 永昌大君의 죽음에 대한 抗議를 하였고 상소하여 “역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영창을 죽인 鄭沆을 죽이지 않으면 전하께서 선왕의 조정에 설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를 죽여야 하며 또한 永昌大君의 爵位를 追復하고 禮葬을 허락하여 이 사실을 널리 공포하여서 전하의 우애와 본심을 밝히소서”<sup>42)</sup> 라고 하였다. 또 廢母論議를 선창한 鄭造, 尹詡, 丁好寬 등 3인의 소행에 대해서는 신하된 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니 그들을 治罪하여 三綱과 五常의 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여 大義에 찬 문장으로써 極言 極諫하였다.

이 상소를 읽은 廷臣들 중에는 놀라서 실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光海君은 더욱 大怒하여 이 사건을 正院에 보내어 同王 6년(1614) 2월 3일 鄭蘊을 하옥시켰고, 상소문을 저지시키지 않고 上達한 承旨를 파면시켰다. 이어 三司에서는 鄭蘊을 絶島에 安置하도록 주장했으나 光海君은 상소 내용이 無道莫甚하고 군왕을 무시했다 하여 대역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右議政 鄭昌衍과 原任大

- 40) ①《光海君日記》卷66. 5年 癸丑, 5月 戊寅條 璣以幼稚有何知識 不則之計 實出於悌男等 璣則無罪像以比不忍矣 如是論執台亦嚴只哨其封爵 ②同月 戊戌條 如是啓之司爲廢庶人, ③《光海君日記》卷68. 5年 癸日. 7月 壬午條〈傳曰江島安置〉
- 41) 永昌의 죽음에 관한 기록 ① 上揭書, 卷75, 6年 甲寅, 2월 壬辰條, 〈江華府使鄭沆殺永昌大君〉. ②《燃藜室記述》卷20, 甲寅春江華府使鄭沆 承爾瞻風旨迫殺永昌, 沆承光海首領之密室燒某炕命菟昌而天云. ③《西宮日記》, 卷之下 八卷 P. 7. 영창대군을 내어보내었다니 광해 2만이 강화부사 鄭沆을 시켜 칠월넘일 일영창을 죽이다.
- 42) 《光海君日記》卷75. 6年, 甲寅2月, 副司直鄭蘊 上疏…兩司一會同度皆言當論鄭蘊上疎之罪… 副司直鄭蘊 上疏 大概有曰請斬鄭沆 以正擅殺之罪追復永昌之號葬其禮臣木相顧驚駭不覺髮豎后瞻裂也

臣 李元翼, 沈喜壽 등은 이를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sup>43)</sup> 그러나 鄭仁弘만은 鄭蘊의 말이 무도하니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주청하였다.<sup>44)</sup> 光海君은 仁弘의 말에 따라 正命으로 죄인을 국문하려 하자 영의정 奇自獻이 鄭蘊은 오직 狂妄에 불과할 뿐 다른 죄는 없는 것이니 국문함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光海君은 의견이 구구했으므로 鄭蘊을 투옥시켜 同王 6년(1614) 7월에 심문한 후 濟州 島 大靜縣에 위리한치를 명했다.<sup>45)</sup>

그해 7월 乙卯일 海南에서 乘船하여 어란포, 성후진을 거쳐 8월 갑진에 제주에 도착했다. 11일만에 애월 명월포를 거쳐 大靜縣 謫所에 도착하니 鄭蘊의 나이 46세였다. 大靜縣 客舍의 동쪽 성 안에서 北方으로 수십 보 들어가 城壁 안에 있는 민가를 謫所로 정하였다. 가시울타리로 두르는 것이 국법이었으므로 집 주위에 山竹, 柀木, 眞柴 등으로 틈없이 두텁게 울타리를 둘러서 그 높이가 十尺이나 되게 하였으므로 謫所 지붕보다 높았다고 한다.

鄭蘊은 仁祖反正까지 10년을 유배생활로 보내면서 流配時에 가지고 온 수백 권의 經史를 읽으면서 나날을 보냈다. 또 謫所내에 두 칸의 집을 지어 지방유생을 教學하였다. 그리고 수백 편의 시를 지어 우울한 회포와 鄉愁를 달래기도 하였다.<sup>46)</sup>

- 43) ①《大東野乘》X, 甲寅年, 3月4日, P. 52, 李元翼, 鄭昌衍 상소, 鄭蘊 措辭頓妄 陷於大典初豈有無君黨逆之心哉 聖人斷罪原議律 聖明依廓德意 特從寬典祖券幸甚 聖明於比有所遲留而議及諸臣 固知天地之量終始句容而區區之誠有所不能自己焉 ②《光海君日記》卷75, 6年, 甲寅 6月, 己時王親鞠問鄭蘊… 鄭蘊之事以狂妄罪之則可也 而鞠問則不當矣 前日大臣 李元翼 沈喜壽 鄭昌衍 等 俱以此意啓達矣 臣之愚意不爲鞠問可也 .
- 44) 《大東野乘》甲寅年, 3월15일 P. 53. (정운은 처음에 정인홍의 문인이었으나 大北으로 권세를 잡자 그와 절교하였다.)… 謬妄不道之實 臣等玉堂劄子論破盡其底蘊 臣不欲更置牙頰間有所條列 蘊之罪萬死無惜也 臣於此亦有罪焉伏竣誅戮.
- 45) 《光海君日記》卷80, 6年, 甲寅 7월, 鄭蘊 定配大靜, … 蘊以引君當道之言 被不測 護逆之名, 身在縲絏室於六日之久而… 絕島安置命
- 46) 朴用厚, 《元大靜郡誌》P. 114. 松竹祠 東門 정운 謫居 遺址에 있었음. 헌종 癸卯年 牧使 李源祚가 祠를 세워 정운을 제사하고 金正喜 扁額을 썼으며 高宗 辛未年 毀撤하였다 .

### Ⅲ. 作 品 考 察

조선조 한문학은 사대부의 필수 교양물이며 정계진출의 절대적 수단이었다. 이는 朱子學의 이념에 입각하여 道學과의 융합을 요구하던 가치관에서 道學派와 詞章派의 분열을 보게 되었고 점차 정치문제로 비화하여 한 시대 불행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sup>47)</sup>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조선중기 문학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宣祖朝에서 光海君까지는 朱子學이 정통사조로서 위세를 떨치면서도 일부 지배층에 의해 후세 실학사상의 선구가 될 만한 實學精神이 배태되고 있는 시기였다. 文學觀에 있어서도 문학을 공리적 효용성에 의해서만 바라보고자 했던 朱子學의 載道の 文學觀과 문학 본연에 충실하여 자율성을 인정하는 許筠, 李睟光 같은 脫朱子學的 文學觀이 양립하고 있는 시기였다.<sup>48)</sup> 조선조 국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당쟁이 끼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당수의 유배문학이 바로 조선시대 정치적 시대적 상황의 주제인 당쟁의 소산이요, 그 反映이었다.<sup>49)</sup>

桐溪는 불우한 유배생활을 소중한 창작적 공간으로 삼아 그 동안에 겪은 직접적 경험과 감정적 내용을 문학으로 표출하였다. 유배기간에 있어서 작가는 생애에서 가장 불행하고 한스러운 생활을 했던 시기이며, 哀切한 인생을 자탄하면서 보낸 悲運의 시기였다. 이러한 충격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漢詩를 지어 生活의 苦衷을 승화시키는 것이다.<sup>50)</sup>

모든 생명체는 그 존재양식에 있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곧, 인간 고유의 산물인 예술작품은 작가의 환희와 고뇌의 열정과 울분의 결정체이

47) 俞賢淑, “李達의 詩文學論”, 《東岳漢文學論集》제1집, 東岳漢文學會, 1984. P. 169.

48) 전형대의 공저, 前掲書, PP. 262~263.

49) 梁淳珪, “제주유배한시연구”, 《제대는문집》 제16집, 1983. P. 46.

5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P. 27.



다. 따라서 특정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작품을 만들어 낸 작가에 대한 인간적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sup>51)</sup>

桐溪 流配漢詩를 생활과 밀착된 人間, 社會, 自然의 세 영역 안에서 작가와의 對自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설정하였다.

## 1. 憂 時 戀 君

조선조 선비들은 군왕의 총애를 받다가 미움을 사거나 정적의 모함으로 버림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君恩에 망극해 하였다. 忠君愛國은 儒敎의 根本思想이기 때문이다. 桐溪도 유교의식의 忠君愛國의 사상에 근원하였으며 이것을 유배생활의 한 基調로 삼았던 것이다. 戀君은 憂時일때 더욱 절실한 것이니 憂國 그 자체가 戀君이요 憐民임으로 해서 더욱 그렇다.

詩가 사명을 지닐 수 있다면 시인 자신의 개인적 흥미에만 구애될 수 없으며, 「詩經」의 주제가 그러하듯이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다가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정신에서 시대를 아파해야 했다.

### 望歸雲

奔雲渡海向神京	빠른 구름 바다 건너 서울로 가고
五色凝祥繞帝城	오색빛 상서로이 왕도를 돌렀네
萬里霸臣隨不得	만리에 외로운 신하 따라 뵈지 못해
數行衰淚寄將行	두어줄기 슬픈 눈물만 연달아 흐르네

떠가는 구름을 망연히 바라보며 자신의 심정을 실은 先景後情의 짜임이다. 커다란 冠蓋의 한라산 넘어 구름이 흘러간다. 五色의 상서로움이 엉키면서 궁궐을 향하여 가는데, 만리에 던져진 이 몸은 따라갈 수가 없다. 다만 그 구름

51) 李炳漢 《圓光漢文學》 제2집, 원광한문학회, 1985.

에 자신의 심정을 기탁할 뿐이다. 轉句의 “隨不得”은 나라와 백성, 군왕과 신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忠을 다하는 것이다. 임금과 섬김이 곧 나라를 섬기는 것이니 儒學思想을 다룬 문학에서는 그 주제가 대체로 君王에 대한 忠誠心이나 君王을 戀慕한 것, 聖恩, 君恩 및 一片丹心の 절개를 읊은 것, 忠誠의 豪氣를 읊은 것 등으로 나타난다.<sup>52)</sup> 군왕에 대한 사대부의 충성심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삶 의 성실성이요, 準據點이었기에 하늘과 임금과 백성은 하나요들이 아니었다.

護成

園中日月過飄然	유배중 세월은 훌쩍 지나가고
已通知非伯玉年	이미 절박하여 백옥의 연령이 아님을 아네
忠孝俱虧猶不死	충효는 굳으나 이지러질뿐 덜하지 않고
聖恩如海又如天	성은은 바다와 같고 또 하늘과 같네

유배지에서도 忠과 孝를 다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다는 신념을 다지며 바다나 하늘과 같은 聖恩을 노래한 七言絶句이다.

題天啓新曆

免魚東土是誰仁	동쪽 땅에 어육을 면한 것이 누구의 어질인가
豐孝悲均普率民	상을 당한 슬픔 모든 백성에게 미쳤으니
天啓新元神繼聖	천계의 새해 열려 신성을 이어
皇基鞏固億千年	임금님 굳은 터전 억만년 계속되리라

桐溪가 53세에 지은 작품으로 중국 연호가 바뀔때 대한 忠君을 노래하였다. 「詩傳」古詩에 이르러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民 莫非王臣”이라 하였으니 온천하 온 백성이 성을 입지 않은 바가 없다는 투철한 忠念을 보여준다.

52) 金圓卿, “韓國詩歌文學上の 儒教思想研究”, 《東岳語文論集》 제13집, 동악어 문학회, 1980, P. 76.

次聖求韻

白日南雲望	밝은 해는 남쪽구름 바라보고
淸宵北斗瞻	맑은 하늘 북두칠성 바라보네
三年獨衰涕	3 년 동안 외로이 쇠약한 눈물 속에
半百已霜鬢	이미 수염은 반백이 되었네
道屈非才賈	도가 꺾이니 재주 값이 없고
居窮似老黔	궁한 삶은 노금같이 되었으니
投荒是輕典	거칠곳 던져짐이 가벼운 법이런가
聖主解威嚴	임금께서 위엄을 풀었으면

五律로 王龍을 잃은 사대부 처지로서 유배지에서 못내 戀君이 衷情을 아쉬어 한다. 白日과 淸宵의 도움으로 궁궐을 바라볼 수 있음은 자신의 결백을 말해준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쇠한 눈물과 반백의 수염만의 어우러졌다. 道가 굽고 삶이 궁하니 거친 이 곳에 성은이 미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八月二日贈別功遠

乘風放棹碧波中	푸른 파도 바람에 노를 맡기니
縹緲瀛洲望裡空	아득히 영주가 허공중에 있네
歸去北堂應有問	돌아가면 응당 물어보시겠지
明時雨露不宜窮	훗날 성은을 입어 풀리리라고

망망한 바다에 바람이 부니 그 바람에 노를 저어 물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자신의 유배가 비록 한스러운 내침이지만, 훗날 성은을 입어 풀리리라는 확신속에 사무치는 戀君의 情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충절을 보여주는 桐溪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義烈이 일월과 같은 신비정신을 실천하기에 힘썼다.<sup>53)</sup> 따라서 그의 詩는 언제나 조정에 대한 충절이었으며 憂國에의

53) 《宋子大全》, 丁酉封事, 孝宗 8년, 1657년 8월16일, 先朝臣鄭蘊忠誠貞貴乎 金石義烈爭乎日月立朝風采激厲類俗臨危大節聳百世… .

의지를 보여준다.

詠殘葵

老葵疎冷遇風霜	가을 해바라기 서리맞아 춥고
枝葉推殘尙抱香	이파리 떨어지나 오히려 향기 품어
莫遺孤根容易授	외로운 줄기 쉬이 뽑지 말아라
赤心曾是喜傾陽	일찌기 붉은 마음 태양을 향한 기쁨이니

자신을 가을 해바라기에 비유하여 곧고 끈기있는 충절을 읊었다. 詩經의 시들은 모두가 忠孝, 孝子, 烈婦, 良友들의 測怛忠厚 마음의 소산이며, 賢人이나 聖人이 실의에 빠져 있고 세상을 걱정하던 때에 지은 것이므로 感慨하면서도 婉曲하여 알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sup>54)</sup> 桐溪의 이 작품 역시 단순 소박한 언어로써 人倫을 宣揚 怨慕 하고 憂時戀君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임 향한 일편단심을 雨聲, 北斗, 雁聲, 竹枝, 涼露 등에 기탁하여 마음 가운데는 한조각 충절뿐이며 외로운 밤에는 임금님 생각으로 친줄기 수염만 회였다. 유배상황에 놓인 처지이면서도 忠君愛國의 정신으로 변함없이 戀君에의 忠念을 노래하는 戀主思想이 드러난다. 현실의 이념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념속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유교사회의 시대조류의 反映이었다.

끊임없는 戀君에 대한 강조는 古典의 世界觀에서 나온 것이며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sup>55)</sup> 오직 믿는 것은 전하 뿐이요, 의지하는 것은 충신 뿐이며, 사랑하는 것은 임금 뿐이요, 걱정하는 것은 나라일 뿐입니다. 그 본심을 캐어보면 어찌 딴 마음이 있겠읍니가<sup>56)</sup> 라는 桐溪 스스로의 토로에서도 憂時戀君의 바탕 위에 그의 작품들이 놓여 있음을 살필 수 있다.

54) 鄭朱煥, “丁茶山 流配詩研究”, 《승려어문학》 제2호, 명지대학교승려어문학회, 1985. P. 101.  
 55) 梁淳琮, “유배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성격”, 《제주문학》14호.1986. P. 200.  
 56) 《桐溪集》 I, 惟其所恃者聖明 所仗者忠臣 所愛者君父 所憂者國事也 原其本心 豈有他腸

## 2. 自歎과 無常

당쟁이라는 정치적 투쟁을 거치면서 육구좌절을 경험한 조선조의 유배인들은 현실집착을 거세당하고 극단의 절망적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流配文學에도 나타나 유배지에서의 체험을 문학화하여, 당시의 지식인들의 처했던 정치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桐溪 역시 최악의 유배지 제주도에서의 낯선 체험을 작품 속에서 비판하게 된다. 곧 수난이 닥쳐와 현실의 참담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까지의 환상을 스스로 깨고 비통하게 흐느끼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 중에서 身上歎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 久雨見月

灑雨成霖過數旬	최치한 장마가 몇 순을 걸르더니
今宵始見月生輪	오늘밤 비로소 둥근 달을 보네
頽然臥我買簷下	서쪽 처마 밑에 피곤히 누웠는데
滿地晴光百似銀	땅 가득 많은 빛이 은같이 희도다

구름에 가리면 무색해져 버리는 수동적인 달이다. 구름과 장마 때문에 오랫동안에 등두렸이 나타난 반가운 달을 거울삼아 처마 밑에 누워있는 피곤한 이 몸, 고향에나 실어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자신의 처지가 무상함을 달을 보며 더욱 실감한다.

### 村女杵歌

士俗無春整	이 지방엔 방아 짙은 풍속이 없으니
村娥拘杵歌	마을 아낙네 절구공이를 안고 노래부르네
高低如有調	높고 낮음이 가락이 있는 것 같고
斷續似相和	끊일락 이을락 서로 어울리듯

欲解須憑譯	모름지기 의지하여 뜻을 풀고자 하였더니
頻涼漸不呵	자주 들으며 부끄러워 부르지 않아
淒涼曉月下	처량하게도 새벽 달에 잠 못 이뤄
遠客鬢先皤	먼 곳에 온 나그네 머리만 세누나

濟州 大靜縣에 유배당한 桐溪가 異香길은 섬 생활의 일면을 그린 것이다. 제주도 민요의 質量이 勞動謠에 있다면 이 노래는 노동요를 듣고 느낀 정감을 표백 하였다.<sup>57)</sup> 처량한 새벽 달빛 아래서 뜻 모를 노래를 들으며 애처로운 자신을 달릴길 없어 희어지는 머리만 한탄할 뿐이다. 杜甫의 「久拚野鶴如霜鬢 遮莫鄰雞下五更」에서 보여지는 “遠客 鬢先皤”의 心境과도 같다.

夜 吟

挑燈春尺劍	등불을 돋우며 짧은 칼을 보다
步月立中宵	한밤중 달 아래 서 있네
天地南溟遠	하늘과 땅 天地가 멀고
星辰北極遙	별은 북극 멀리 있네
寸心灰利祿	한조각 마음에 이득과 녹봉을 잃어오니
微願在漁樵	희미한 소원은 어부와 초동에 머물렀네
倚柱狂歌發	기둥에 의지하여 狂歌를 부르니
人言士也驕	사람들이 선비인가 교만한 이인가 하더라

달을 보노라면 북받쳐 오르는 유형수의 신세를 이기지 못한다. 대상 없는 고독한 밤에, 나와 님과 달을 벗삼아 마음으로나마 왕래하고 싶다. 杜甫는 난리에 쫓기는 가운데 달에게 눈을 돌려 人間의 悲漢을 전이시켜 놓았다. 桐溪는 비록 임금을 떠나 멀리 유배된 신세이지만 漁父, 樵童과 더불어 바라보는 달에게 희미한 소망을 기탁한다.

남들은 나를 狂歌를 부른다하여 선비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비웃지만 南溟天地가 아득하여 星辰을 바라볼 수 없으니 이 신세 언제면 풀려날까 답답한 심정을 자탄해 본다

57)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조약출, 1983, p.35.

挽朴參奉

吾友伯和今也亡	우리 벗 백화가 이제 간곳 없어
已焉吾道日荒荒	이미 도는 날로 거칠어지고
屋前猶有江心月	집앞 강심에는 달만 떠 있구려
留取風神破晦茫	풍신을 취하여 머루르게 하려하나 어두워 회미할 뿐

교우하듯 벗의 죽음을 듣고 비통해 하는 노래다. 군왕의 忌諱를 당하여 쫓겨난 신세지만 조정에서 임금을 보좌 할 棟樑材가 사라져감을 슬퍼한다. 우리의 道를 닦아 나가던 벗 朴組가 죽었으니 도는 날로 거칠어진다. 江心月에 비취 風神을 모으려 하나 물결에 흩어져 무상한 심정을 읊을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臘月一日

一作籬中囚	위리에 갇힌 죄수
五圓海上月	바다 위 달은 다섯번 둥글었네
南鄉消息稀	남쪽 땅에 소식이 끊기니
北闕夢魂越	꿈 속에 북궐을 다녀오네
時序何飄忙	해는 섭없이 바뀔 때마다
客顏易衰歇	얼굴빛은 날로 늙어만가네
邊城曉角生	변방성 아침 호각소리에
愁緒入霜髮	흰 수염엔 수심이 가득

설달 초하루, 위리안치된 적소에서 窮囚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달은 다섯 번이나 둥글었건만 한번 끊긴 소식은 다시 이어질 줄을 모른다. 꿈 속에서 서나마 북궐을 찾아 임금님께 절을 올렸다. 문밖 邊城 호각소리에 놀라 깨니 수심이 가득찬 囹圄의 몸인 것을 어찌랴.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꿈을 빌어 君王, 母親, 兄弟들을 만나러 갔지만 새벽 호각소리에 다시 유배지로 돌아와야 하는 신세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孟浩然的 “除君不相見 日莫獨愁

心”에 비견할 만하다.

偶 成

北來消息俱堪怕	북쪽에 오는 소식 모두다 회미하니
夜卜燈花書擲錢	밤에 등불에 점을 치고 낮에 돈 던져 점을 치네
生死固知拋度外	생사는 한갓 도외에 던져버렸음을 알았으니
且憑杯酒解憂愁	또 한잔 술에 의지하여 근심을 푸네

先景後情을 나타내는 七絶이다. 起·承句에서는 북쪽 소식이 모두 회미하여 답답한 심정을 낮에는 돈을 던져보고, 밤에는 등잔불에 의지하여 점을 친다. 轉句에서는 생사를 포기하기에 이르고 結句에서는 오직 술에 의지하여 자신의 心情을 달래보는 것이다. 이는 後情이 더욱 두드러진 작품으로 견디기 어려운 窮愁를 나타내었다. 生死는 한갓 度外로 던져버리고 유형수의 몸이 되어 술로 마음을 달래는 작가의 哀恨이 서려 있다. 술은 交友나 樂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에는 근심을 잊고 자신을 잊기 위한 것이다.

秋 盡

鷓鴣自失一枝遊	초료는 짝을 잃어 가지에 노닐고
蟋蟀還疲五十秋	실술같은 짧은 인생 오십 년을 지내었네
大抵人情悲暮景	인생은 늙어서 더욱 쓸쓸하거늘
況余憔悴在孤囚	하물며 나는 초췌한 유형수가 되었구나.

초료는 반드시 짝을 지어 다니는 새다. 그러나 자신은 짝 잃은 새의 신세마냥 외롭다. 한편 귀뚜라미같은 짧은 인생 어느 새 오십 고비를 맞았다. 인생이 늙어감은 누구나 슬퍼하는 것은 자신은 초췌한 유형수의 신세이니 누가 나보다 더 슬프겠는가.



聞 蟋 蟀

通宵唧唧有何情	귀뚜라미는 어인 일로 밤새 우는가
喜得清秋自發聲	가을되니 기뻐서 우는 것이냐
微物亦能隨候動	미물도 기후 좃아 움직이는데
遇儂還味得時鳴	어리석은 나는 때를 기다려야 울겠네

귀뚜라미가 밤새 울어대는 연유는 무엇일까 자문해 본다. 맑은 가을이 되어 기뻐서 우는 것이냐, 미물인 너도 세월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 어리석은 이 몸은 울어야 할 때 울 수도 없으니 귀뚜라미만도 못한 내 처지다. 유배지에서 맞는 쓸쓸한 가을의 심정을 귀뚜라미를 빌어 물어보련다. 곧 음양을 따라 울어서 吟蛩이란 별명까지<sup>58)</sup> 지닌 귀뚜라미를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한껏 달래어 본다.

次聖求 贈別

古意偏多感	옛뜻은 편벽되어 느낌이 많고
今人莫我知	今人は 나를 알지 못하네
乾坤何奔蕩	하늘과 땅이 어찌 소란하가
道術已衰遲	도술은 이미 쇠하였는데
春草隨年歇	봄풀은 해를 따라 시들고
鄉心到老悲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늙을수록 슬퍼지네
自分理獄劄	스스로 나누어 옥칼을 감추니
難似處囊錐	주머니의 송곳은 나오기가 어렵구나

자신의 정직한 뜻은 아랑곳 않고 봄풀은 해를 거듭해 시들어 가니 늙어가는 마음은 悲嘆에 잠긴다. 스스로 옥칼을 감추었으니 주머니 속에 감춰둔 송곳은 뚫고 나올 날을 기다린다. 유배가 끝나 부름을 받을 날만 믿고 있는 심사다.

---

58) 〈爾雅〉: 蟋蟀隨陰迎陽一名吟蛩

世界觀의 類型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비극적 세계관이다. 현실의 실현 가능성에 체념하면서도 개인적인 상상을 통하여 가치를 지향하고, 현실에서의 피해의식을 보상받기 위해 문학의 본질과 깊이 관련을 갖는다. 특히 유배 문학 작품에서 빈번히 주제로 등장하는 身上歎은 바로 비극적 세계관의 전형적인 예다.<sup>59)</sup> 유배라는 현실의 고통과 피해의식을 작품에 투영하고 自歎이란 비극적 의식으로 깊어진다.

夜 雨

畏風不出戶	바람이 두려워 나가지 않고
聞雨獨開窓	비소리에 홀로 창문 열었네
對竹愁顏破	근심스런 얼굴 대를 대하니 사라지고
看松病勢降	쇠약한 병세 소나무를 보니 약해지네
熨胸燒片瓦	가슴에 고약 부치려 기와조각 데웠고
煮藥瀉殘缸	약을 달여 엷은 항아리에 부었으니
欲寫窮途態	가난한 생활 그리려 하나
爭無巨筆扛	큰 붓 다투어 줄 이 없구나

바람소리를 두려워하고 비소리를 듣고 외로이 창을 열곤 한다. 대나무를 대하니 근심이 잦고 소나무를 바라보니 병세가 약해진다. 외롭고 궁한 유형수 생활에 기와조각이나 데워 가슴의 병 고치려 몸부림친다. 어려운 생활을 그리려 하나, 큰 붓이 있어도 그려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 청각, 시각, 심정 토로의 감각전이로써 자신의 궁한 생활을 묘미있게 강조하고 있다.

夜起欲望北斗籬高只見杓三星 有感

古人倚樓望	고인은 다락에 의지하여 보았다는데
今我隔籬看	지금 나는 멀리 울타리 너머 바라보니
但見三星杓	다만 삼태성만 보일 뿐

59) 梁淳瑛, 1985, 上揭書, p. 201

終遮四點圍    마침내 네 점의 원도 가리웠구나  
 面墻方覺苦    앞 울타리 바야흐로 괴로움 깨닫게 하고  
 開牖固知難    조그만 창살 문을 열기도 어렵네  
 賴有一心在    오직 한마음에 힘입어  
 惟磻拱北丹    북두성 보기도 오히려 조심해야 하나

밤에 일어나 북두성을 보려하나 유형수 마음이 높은 울타리로 네 점을 가리웠다. 다만 삼태성만 보이니 杜甫의 “覆壓三百里 隔離天日”의 심정과 동일하다 하겠다.

조선조를 지배하던 시적 세계관은 곧 시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시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하였다. 이 작품은 유배현실의 심정을 절실한 자탄의 표백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극성이 삼태성만 보였으니 과연 위리안치된 울타리가 높다든 이유만일까.

見獨鷺立田中有感而戲 二首

皎潔衣裳形影孤    고결한 의상 모양새는 고상한데  
 有何營食立田途    어찌 먹을것 찾아 밭 가운데 섰느냐  
 人間繪繖誠堪怕    인간은 진실로 감박함을 찾아  
 順向江湖訪荻蘆    모름지기 자연을 향해 갈대집을 찾는데

蘆荻洲邊春水肥    갈대집 물가에 봄물이 넘쳐 흐르니  
 十年盟與共笱磯    10년 동안 더불어 고기잡이 맹세하였네  
 今來旁狎非營食    지금와 물가 옆으로 가는 것은 먹이 구함이 아니라  
 爲問吾君歸不歸    우리 친구가 돌아왔는지 묻고자 함이라

당쟁의 극악상을 비유하였다. 고고한 옷을 입은 백로가 밭 가운데 홀로 섰으니 인간도 세상의 깨끗함을 찾아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하물며 미물인 너는 웬 일로 서 있느냐. 10년 동안 물가에서 고기잡이를 약속하였으니, 물가로 가

60) 上揭書, p. 207, 詩者出於心而形於言 言之精華也 觀其言之所發而可知者 其人之所蘊

는 것은 먹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돌아오는지 묻고자 함이라 변명한다. 桐溪는 조선시대 당쟁의 상황을 백로에 비유하여 社會告發의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당쟁으로 인한 인간사가 허무함을 표출하고 있는 대표작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초가을 쓸쓸한 비와 서걱이는 대숲 소리에 잠 못 이루어 뒤척이온 나그네의 신세와<sup>61)</sup> 仙境인 한라산을 본며 곤궁한 유형수의 삶을 한탄하기도<sup>62)</sup>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嘆老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가<sup>63)</sup> 하면 옛 친구를 찾아 꿈 속에 들었으나 孤城에 나그네 신세만 한탄한다.<sup>6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유배한시는 정치적, 시대적 상황인 당쟁으로 인하여 왕충을 잃고 정적의 유배당한 桐溪 자신의 처지를 自歎哀訴하고 있다.

自歎과 無常은 유배현실에 직면한 유배자의 비교적 정직한 이해에서 비롯된 문학의 결실이며, 유배적 현실을 정직하게 이해함으로써 현실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다른 어느 주제보다도 현실 이해가 정적하다. 유형수로서 암담한 심정을 지닌 그의 눈에 투영되는 현실은 어둡고 구름으로 가리워진 달의 모습이었다. 주로 달, 鬢髮, 窮囚의 신세, 北斗七星, 귀뚜라미 등을 소재로 자신의 외로운 유배생활을 비통, 절망, 불안 등을 극복하려 하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유배상황에 직면한 신상을 한탄, 심화하고 있다. 언제나 제주도는 그늘져 있는 바다요, 온종일 가치른 마을의 부는 바람이니 流刑囚로서의 自歎은 달이 둥두렷 뜨는 날이면 한층 더한다. 그의 詩想은 유배지에서 돌아갈 날도 기약없이 몸도 못 가누는 병든 자신의 무상함이 스며있다.

61) 《桐溪集》卷2, 〈初秋夜色〉

62) 上揭書, 〈次唐子方韻〉

63) 上揭書, 〈除夕〉

64) 上揭書, 〈次聖求的 贈別〉

### 3. 懷鄉, 別恨과 憐憫

流配는 桐溪에게 懷鄉과 別離의 恨을 갖게 한다. 이별의 汗을 품고 떠나는 流配過程에서 남긴 작품을 보자.

#### 十二日功遠而受以事先歸別後有感

惜別非無淚	애석한 이별 눈물 없을 수 없는데
臨分不灑巾	이별에 임하여 수건을 적시지 않네
我行隣舳舻	나의 길은 도깨비와 이웃하는 것이고
君去奉晨昏	그대의 길은 晨昏定 받들러 가는 것이니
善惡由人異	선악은 사람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休殃以類臻	복과 재앙은 유에 따라 다르네
門閭伎望久	문밖에 기대어 바라본 지 오래니
歸路莫逡巡	돌아가는 길에 옆을 보지 말아라

나는 도깨비와 이웃하러 가는 유배 신세이고 네가 가는 길은 晨昏定 받들러 가는 것이다. 頷聯의 舳舻은 杜詩 중에 “天長眺東南 秋塞與舳舻”의 用事다. 適所에서 고독한 생활을 시작하려는 시기자 가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길·흉은 유에 따라 다르다 하였으니 빨리 돌아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님을 위로하라 당부한다.

#### 思 家

有兄相友愛	형님과 서로 우애가 있어
林倍公翱翔	숲에서 함께 빙빙 돌았지
作別年重換	작별하여 해가 거듭되니
投荒髮已霜	까지했던 수염이 희어졌네
幾成春草夢	봄 꿈을 꾸는 것이 몇번이던가
空詠棗華章	공연스레 시경 우애의 장을 읊조리네

何日嶧川路 언제나 역천길에서  
 翩翩羽連鴈行 가지런히 기러기가 행렬은 이을 것인가

有弟字功遠 아우의 자가 공원인데  
 爲人誠欸優 사람됨이 진실로 드높아  
 囿門同農熟 간히 있을땐 함께 근심했고  
 浦口共悲秋 포구에서 쓸쓸한 가을을 함께 했지  
 脉脉臨岐別 동기간에 이별을 할 재  
 茫茫泛海愁 망망한 바다에 근심을 띄었네  
 何時重握手 어느 때에 다시 손잡고  
 銳破此情悠 이 마음 끝없음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 시는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思家 5首 중에 2首를 취한 것이다. 桐溪는 유배생활 중에도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를 表白하는 것이 많다. 詩經(棣華章)<sup>65)</sup>의 棣鄂之情에 비유하여 새들이 수풀 사이로 다정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부러워한다.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와 빠져린 별리의 정한을 토로하고 있다.

主倅送生鮑

盈盤甲族蠶猶生 쟁반 가득히 고기가 아 움직이는 듯  
 瓊味人稱鳳炙并 사람들은 봉적같은 맛이 좋다 칭찬하네  
 目擊忽思慈母嗜 문득 어머님 좋아할던 것을 생각하니  
 竹筒雖有奈無誠 대통은 있지만 정성이 없음을 어이하리오.

忠孝는 儒教의 根本思想이다. 論語 學而篇에도 “孝慈則忠 主忠信”이라 하였으니 그의 유배한시 중에 忠孝를 읊은 작품들이 다수 보인다. 七絶로 고을 원님이 보내 준 싱싱한 생선을 보고 문득 어머님을 생각한다. 어머님이 좋아 하실던 생선을 대하니 정성이 없는 자신의 不孝를 어찌하겠는가. 지극한 孝誠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풍겨나오는 작가의 심성을 느끼게 한다. 朴仁老의 시

65) 杜甫의 <至後詩>에 ‘梅花各開不自覺, 棣萼一別 永相望’이란 詩句가 보인다.

조 “早红柿歌” 옛 漢陰 李德馨이 감을 대접하자 아버이를 생각하며 읊은 것과<sup>66)</sup> 너무도 비슷한 정경이다.

朝 鴉

群鴉朝集老耄頭	까마귀떼 아침에 낡은 뿔머리에 모여드니
飛逐知鳴任自由	날며 쫓으며 울음으로 화답하는구나
多羨爾禽能反哺	너같은 짐승도 늙은 부모 봉양하는데
人而不苦司無羞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못하니 부끄럽구나

孝誠이 절실하게 표백되었다. 反哺는 本草「慈鳥」條에 “此鳥初生 母哺六十日 長則反哺六十日 司謂慈孝矣” 라 하여 孝鳥라 일컫는다. 桐溪 자신은 反哺의 報恩은 커녕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불효를 부끄러워 한다. 뿔머리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자신의 불효의 감정을 표백하였다. 反哺를 제재로 불효에 대한 한탄을 읊은 것으로 朴孝寬의 시조에서도 나타나 있다.<sup>67)</sup>

三日慈母初度有感

年年此日壽筵開	해마다 오늘은 잔치를 열어
兄弟三人無老萊	형제 셋이 老萊子の 춤을 추었지
今日飄零滄海外	오늘은 바다 건너 떨어져 있으니
伎間空使母心哀	문가의 어머니 슬픈 마음이지겠지

老萊子는 孔子와 동시대인 중국 춘추시대 楚나라 현인으로 24효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난을 피하여 蒙山 남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70세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린이를 하여서 부모를 위안하였고 老萊子の 15편을 지었다고 한다. 史記「孝子傳」에서 引據한 것으로 孝行을 일컫는 말이다.<sup>68)</sup>

66)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신구문화사, 1965, 참조

67) 《歌曲源流》, 뒤라셔 가마귀를 감고 凶타 흥똥똥고/反哺報恩이 괴아니 아름다운가/스름이 저 식만 못 ㅎ물 못늬 슬허ㅎ노라

68) 老萊子, 春秋楚人 惟至孝年七十 常著五色斑 爛衣 作嬰兒戲以娛其親後耕於蒙山下, 楚王聞其賢召爲輔不就隨其妻居江南 一年成落三年成聚 .

滄海를 건너온 桐溪는 어머님 생신을 맞아 懷鄉에 젖지 않을 수 없다. 어머  
님을 지금 동네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실 텐데 자신은 유배된 신세가 되었으니  
不孝를 어떻게 할 것인가.

夜 吟

瀟洲山下滯嚴程	한라산 아래 귀양와 머물렀는데
屈指離家已十冀	손 꼽아 헤어보니 집 떠난 지 십 년
夜侍慈顏對兄弟	꿈속에 어머님과 형제를 보았더니
問兒何日波窮溟	애야 언제나 바다를 건너오냐?

冀은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하루 한 잎씩 돋았다가 열엿새부터 한 잎씩 시  
들어 그믐에는 다 떨어지고 작은 달에는 마지막 한 잎이 시들기만 하고 떨어  
지지 않는 달력풀이다. 10년이 흘러 꿈에 어머니와 형제를 대하니 언제 바다  
를 건너올 것인가 애처로이 묻고 있다. 이제 유배생활 10년이 되었으니 고향  
의 강산도 변했을 것인데 타향살이 설움 어디에다 씻을까.

이 외에도 桐溪는 영수 신선에 기탁하여 星宿祭를 모셔 불효를 덜고자 했으  
며<sup>69)</sup> 꿈 속에 고향에 들어 수연잔을 올리다 문득 닭소리에 깨는 회향의 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sup>70)</sup>

黃昏見月

竹簷疎冷月光斜	성긴 처마 밑으로 차운달 기울어지니
尋逐愁人照影華	수심찬 나의 수염을 비추도다
今夜故園應共見	오늘밤 고향에서도 저 달을 보겠지
妻兒垂淚望天涯	아내와 아이들 하늘 끝 바라보며 눈물 흘리겠지

69) 《桐溪集》卷2, 〈爲親設星宿祭于漢擘山〉.

70) 上揭書, 〈記夢〉.



빈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자신과 아내를 이어주는 달을 仲介者的 존재로 파악한다. 처자가 있는 고향의 달과 적소에 비추는 달을 중간에서 형성하는 삼각형의 절묘한 공간감각으로 하여 별한의 안타까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杜甫가 安祿山の 亂 때에 반란군에 붙잡혀 長安에 억류당했을 때 지은 「月夜」<sup>71)</sup>의 이미지와 상통한다. 달을 보며 처자식을 그리는 아버지의 지극한 정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달에게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

月夜聞歌聲

陰雲欲駁月光流	어두운 구름 달빛을 가리우니
銀海溶溶萬頃秋	은빛 바다 거침없이 파도를 이루네
何處漁歌風外落	어데선가 고기잡이 노래 바람 밖에 들리니
解教遷客動鄉愁	귀양 온 나그네 고향생각 나게 하는구나

衰弱한 몸을 이끌고 어두운 구름과 달빛이 서로 섞이려는 세상사를 근심한다. 어두운 구름은 간신이요, 달빛은 충신의 비유다. 은빛같은 물결이溶溶한 데 어느 곳에선가 漁父歌가 들려오니 謫客의 향수만 일게 한다.

“집을 찾는다”라는 것은 첫째, 집은 머무르는 곳이요, 둘째, 나그네로서의 방향을 끝낼 수 있는 종착점이다. 세째, 되찾아야 할 진실인 것이다.<sup>72)</sup> 이 모두를 생각하는 桐溪는 회향의 정을 그리워할 뿐이다.

記 夢

夢入長風路	꿈에 풍로에 드니
依然舊洞雲	의연한 옛구름이네
靑松沿澗麤	청송은 시냇가에 우거지고
碧水溢涯奔	벽수는 물가에 분주하니

71) 《杜詩重》卷十二, 4 〈月夜〉. 今夜鄜州月 閨中只獨看 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 香霧雲鬟濕 清輝玉臂寒 何時倚虛幌 雙照淚痕乾 .

7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p. 363.

浴罷登巖峻	목욕을 마치고 바위에 올라
行杯坐列群	들러앉아 술잔을 나누네
無端霜角動	무단히 차운 호각소리에
身在縣東門	몸은 대정 동문에 있네

꿈길에 고향을 찾았다. 옛모습 그대로 靑松은 시냇가에 푸르렀고 碧水는 출렁인다. 바위에 बैठ들과 술잔을 나누니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문득 호각소리에 놀라 잠든 나를 깨운다. 꿈을 빌어 시각적으로나마 향수를 풀려했던 桐溪의 희망은 청각적인 호각소리로 인하여 부서지는 것이다. 유배지 주민들의 생활고를 살피고 밤새 방아짚는 여인을 통해 연민의 정을 느끼며<sup>73)</sup> 異城 땅 유배지에서 주민들의 거친 식생활을 보고 비극적 체험을 실감하기도 한다.<sup>74)</sup>

桐溪는 유배지에서 千辛萬苦의 고통을 겪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이별한 처자와 부모를 그린다. 懷鄉의 戀慕는 別離의 恨과 함께 유배한시의 기본적인 주제를 이룬다. 눈 앞에는 아득한 바다 물결뿐 언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지 꿈 속에서 白鶴을 탄 신선이 되어 歸意에 젖어본다. 다만 헤어져서 사무치는 이별의 통환을 굳은 기약으로나마 달래본다. 현실의 그리운 감정들이 과거의 체험과 감각으로 복합되어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향수와 사모하는 마음들을 외로운 밤에 비치는 달과 별에 투영되었다. 또한 기러기를 빌어 병들고 방랑하는 자신의 恨을 고향으로 보낸다.

桐溪는 그리움으로 산 詩人이다. 만이 타향에 떨어져 향수로 일관하였으며 꿈에서나마 고향을 찾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입체화하여 자연과 인생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연민적 이미지들은 愁, 淚, 恨, 別, 憐憫으로 표출하여 悲劇的 자신의 체험을 읊조린 비극시인이라 하겠다.

73) 《桐溪集》卷2, 〈貧女吟〉.

74) 上揭書, 〈日免秋未賞新稻〉

#### 4. 脫俗隱遁과 自然閑情

조선조의 당쟁을 통하여 정치인, 학자들은 흔히 逃避的 隱遁이 아닌 趙世의 隱遁思想을 낳았다. 趙世는 山林이나 江湖로서의 도피나 世間과의 단절을 뜻함이 아니라, 현실과 名利에 관심을 두지 않고 非是利害를 잊고 살려는 것이다.<sup>75)</sup> 당쟁으로 유배된 桐溪 역시 隱遁, 逃避하는 심정으로 自然에의 投入을 보여준다.

##### 雨後吟

晚整奔雲陣	그늘어진 골짜기 구름이 분주하고
深林響石灘	숲 사이로 들여울 소리가 은은하네
幽人顧多事	숨어사는 사람 번다한 일 돌아보니
耳目不爲閑	이 내 몸 한가롭지 못하구나

先景後情의 五絶이다. 起句는 골짜기 사이를 오가는 구름을 보는 시각적인 모습이다. 承句는 눈을 돌려 수풀 사이 물소리를 듣는다. 시각, 청각의 반복으로 轉, 結句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눈과 귀가 자연 속에서 분주함을 역설적으로 표출하였다. 즉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이니, 나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내가 있어 物我一體를 보인다. 그러나 자연은 한가하지만 유배된 자신의 마음은 조급하니 분주하여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초조한 심정이다. 유배생활에 직면한 桐溪의 불안한 정신적 상황을 雲, 林, 石灘을 소재로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75) 李種殷, “國文學과 道教思想”, 《李丙疇先生周甲記念論叢》, 1981. PP. 388~390.

偶吟 二首

菊園叢竹竹連梅      국화 울타리 대숲 연하여 있는 매화  
 梅下稚松種幾枚      매화 밑에 어린 松 몇 줄기를 심었느냐  
 與我共成霜雪契      나와 함께 霜雪契를 이루었으니  
 靜中相對好懷開      고요 속에 마주하여 심회 나누 자꾸나

四友風聲逢老醜      네 벗은 바람소리에 늙음을 만난듯  
 梧籬高處共幽巢      울타리 높은 곳에 함께 살았네  
 莫言標格因吾屈      고고한 품격 굽혔다 하지 마오  
 到此方知君子交      바야흐로 군자의 사귀를 알것이라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菊, 竹, 梅, 松을 四友로 삼아 자신이 심회를 위로한다. 국화 울타리로 자신의 유배 울타리를 미화하였다.<sup>76)</sup> 竹은 지조와 정조를 대표하는 표본이고, 梅는 雪寒風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므로 고결하고 절개 있는 정절의 미고, 菊 또한 霜雪의 北風에도 그 지절을 지켜 가장 늦게 핀다. 松은 독야청청의 절개를 상징한다. 이러한 桐溪 자신의 志操와 품격을 대신한다. 그의 강직한 절개와 군자의 사귀는 四友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 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백하였다. 四友은 純潔과 道德的 完整의 상징으로 隱者의 생활을 표현한다. 곧 이국땅에 와서 가지뻗고 절개를 골수하는 대나무를 보며<sup>77)</sup>, 잠시 꺾인 매화 향기를 이끼 속에 숨겨 두었다.<sup>78)</sup> 그러나 삼경의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사악한 소인배들을 조롱이나 하듯 飄逸한 풍채로 白露를 감상하고 있다.<sup>79)</sup>

76) 《桐溪集》卷1, 先生 47세 正月 籬中種松竹梅菊之曰 四友有時曳筑逍遙… .

77) 《桐溪集》卷2, 〈枯竹遷生〉.

78) 上揭書, 〈析梅植壺中〉

79) 上揭書, 〈夜起偶吟〉

靜中吟

大靜城東影伴身	대정성 동쪽 그림자 짝하여 서니
梅枝竹色爭無塵	매화가지 대잎파리 풍진을 안겨주네
傍人莫笑生涯靜	내 모습 고요하다 나그네 웃지마오
欲向靜中求主人	스스로 고요 속에 임자 찾으려 하오

大靜城 동쪽에 그림자와 벗하여 매화가지 대잎파리 바라본다. 속세를 벗어나 티끌없는 고요 속에 자신을 일으켜 찾고자 한다. 宋나라 程明道の “傍人不識余心樂 將謂淪閑學小年”의 이미지와 통한다. 脫俗隱遁의 심정을 불안한 속세의 와중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靜’의 세계로 沒入하려는 心志가 보인다.

今年種菊減少開後自嘆

年來病與懶相隨	금년에는 병과 게으름이 서로 따라서
蔕菊培根減昔時	국화를 심어 배양함이 적었네
數朶寒英孤發馥	몇포기 차운 꽃술 외론 향기 발하니
月中賴影亦清奇	달 속 성긴 그림자 또한 맑고 기이하네

七絶로 현실이 주는 고독을 국화와 달로 승화시켰다. 유배상황에 직면한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하여 自然愛를 노래하면서 현실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남은 몇 포기 국화가 발하는 향기에 더욱 쓸쓸한 절망으로 우수에 젖는다. 국화가 시들어가는 모습은 바로 자신이다. 성긴 그림자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달은 더욱 자신의 처지를 자극한다.

유배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존재성과 의미성을 박탈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유형수에게 있어서 그러한 현실은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세계로 느껴진다. 현실의 이념은 일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현실 저편 피안의 세계로 자신을 기탁하여 한다. 유배한시에서 흔히 엿보이는 도가적 품모는 바로 浪漫的 世界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원래 道家란 현실적, 세속적 윤리관을 초월한

종교적인 도를 주장하는 자들로서 노장사상과 신선사상을 그 기반으로 한다.<sup>80</sup>

奇遊山三太守 二首

遙想秋岑錦色均	멀리 가을 멧부리 금색이 고르네
三旌飄拂暮雲濱	삼색 깃발 구름가에 나부끼네
莫教鐵笛臨風弄	쇠파리 바람을 회롱하지 마오
山下孤城有旅人	산 밑 외로운 성 나그네가 있으니

松遙應留白鹿蹤	우거진 소나무 백록의 자취 있어
諸公休道是仙翁	諸公은 신선되었노라 하지 마오
夜來魂夢忘羈絆	꿈 속에 묶여 있음을 잊을 것이니
先着吟鞭上絕峯	먼저 상절봉에서 말채찍을 옮겼지

제주의 자연경관은 脫俗隱遁의 경지로 그려놓고 있다. 저 白鹿의 仙人이 기다리는 靈峰, 넓디 넓은 滄海, 漢孛山을 중심으로 대자연에 과묵한 작자의 孤高한 仙味를 나타낸다. 작자는 외로이 간헐는데 산에 놀러간 感太守, 곧 제주 목사, 대정원과 정의현감은 자연을 벗하여 놓고 있다. 前者의 秋岑, 雲濱, 鐵笛은 三太守가 속세와 영합하는 자연이니 작자를 더욱 외롭게 한다. 後者는 자신의 처지를 잊고 꿈 속에 소나무, 백록과 벗하여 仙翁이 되었으니 上峰에 올라 호령하지 않은 수 있겠는가. 우람한 대자연 속에 우뚝 선 仙翁 桐溪의 고고한 절개가 선명하다. 그러나 자신은 꿈이 깰까 저어하는 몸짓이다. 桐溪의 上絕峰의 자태는 唐代 李渤의 형제가 白鹿洞에 隱居하며 讀書하고 白鹿을 기른 것과 흡사하다.

夜頌宋儒箴銘

夜氣方清淨	밤 기운이 청정하니
高聲誦古箴	소리높여 옛성인들의 잠명 읊네

80) 梁淳琮, 上揭書, 1985, p. 201.

先賢知在目	선현들이 눈앞에 있는듯
明訓加銘心	명훈을 마음에 새길 만하네
對越常要敬	대하여 공경함을 구하니
淵源只是欽	근본은 다만 공경에 있네
沈潛三復了	깊이 세 번이나 반복하니
虛室月星臨	빈방에는 月星만 어울리네

위리안치의 고독을 옛 선현들의 잠명을 읽으면서 달라고 있다. 사회와 단절하고 자연에 침잠하는 것은 道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좌절을 뜻하며, 道의 원천에로의 회귀를 뜻한다. 자연을 조화로운 세계, 道가 내재된 세계로 보고 道의 內面化로서 自然親和의 의지를 보인다. 結聯에서 달과 별을 벗삼아 유배생활을 그리는 이미지는 李奎報가 벼슬을 단념하고 자연에 침잠하여 산중생활을 읊은 시 중에 “남화경을 득과하고 나니 산중에 해가 마침 정오일세”라는 詩句와도 통한다.

得竹實甲

何山竹實大如斯	어느산 대열매가 이다지도 카다란가
高鳳雙飛共啄之	봉황이 쌍쌍이 날아와 함께 쪼아 먹는구나
霜甲落來浮碧海	차가운 껍질이 벽해 위에 떨어지니
瀛洲島上遇相知	영주섬 북판에서 뜻밖에 만남이던가?

塵世에서 맛볼 수 없는 脫俗隱遁의 情感을 表白하였다. 梅泉의 「閑適」의 起句 “除非猿島無人到 縱設紫門且寘關” 처럼 새와 짐승을 빼놓으면 오는 이 없는 謫所에 대열매가 떠나려 오니 짝을 이룬 봉황새도 따라와 쪼아 먹는다. 서리 맞은 껍질이 碧海 위에 떨어졌으니 외로운 영주섬에 반가운 만남이 이니런가, 자연에의 몰입은 自然隨順의 人生觀으로 유배생활을 하는 작자의 바탕이 되었고, 安分과 守分을 통하여 知足을 넘어 悠悠自適하는 樂道에서 노니는 江湖思想과 이어진다.

桐溪의 자연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자연이 아니라 李白의 “相看兩不厭 只有

敬亭山”하는 자연이며, 杜甫의 형클어진 心思를 가라앉혀 주는 渾然一體의 자연이다. 桐溪의 현실에 대한 감정치리는 자연을 통해 성숙해 있다. 유배라는 현실적 절망감에서 휩싸이지 않고 좀더 여유있는 현실인식을 가지고 소상하게 관조하였던 것이다.

次秋鴈韻

陣陣成行序	나란히 행을 이루어
翩翩落海干	날개 퍼덕이며 바다고 내려앉네
舍蘆要遠徹	갈대에 쉬는 것은 멀리 날아가기 위함이고
避地爲驚寒	땅을 피함은 추위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라
清叫知音少	맑게 울어도 알아 줄 사람 적고
高飛飽食難	높이 날지만 배불리 먹기 어렵네
明春共歸去	내년 봄에 돌아가면
戲浴嶧溪灘	택계 찬란한 물에서 물놀이 하니

한 줄로 늘어선 기러기떼 雲을 붙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당파싸움이 질서 정연히 날아가는 기러기 행렬과 대비된다. 자신의 유배를 잠시 쉬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함이라는 隱遁의 뜻을 표백한다. 秋鴈도 “隨陽鳥昏禮奠 鴈取其信 知不再偶” 하는데 나는 知己之友를 못 찾고 멀리 유배되어 있다. 내년 봄에도 돌아가 고향 시냇가에서 물놀이 하리라 다짐하며, 유배생활 속에서 自然閑情을 찾아 자신의 처지를 승화시킨다.

유배생활 挫折과 絶望의 狀況이라기보다는 자연을 통하여 사태를 관망하고 자기의 감정을 문학화하고 있다 하겠다.

病 臥

斗室難容膝	斗室에는 무릎을 드리기 어렵고
家藏又滿前	집에 물건들은 또한 가득하다
東窓衣袋掛	동창에는 옷을 걸었고
北壁米囊懸	북벽에는 쌀주머니가 있네



鄭湜의 流配漢詩 研究

酒翁如拳許	술단지 는 주먹만하고
鹽缸半破旗	소금 항아리 반쯤 깨어졌네
生涯隨意足	삶은 마음 따랐으니
莫歎氣因遷	옮겨가는 기운 탄식할것 없네

제주 가옥과 주거환경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조그마한 斗室에 모든 물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가난한 공간이다. 주먹만한 루단지와 반쯤 깨진 소금항아리를 벗하여 두고 겨우 무릎을 놓을 공간이니, 桐溪의 유배적 삶이 杜甫의 “審容膝之易安”을 연상케 한다. 궁한 자기의 처지를 표출하면서도 結聯에 가서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自足하는 悠悠自適한 隱者로 자처하고 있다. 이는 바로 孔子가 말한 “知己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 하겠다.

詩人에게 자연은 중요한 제재이다. 자연 그대로일 때 그 예술적 가치는 크다. 이런 자연을 혼연히 연결시키는 재주가, 문학적 소질의 폭과 깊이가 아닐까 한다.

桐溪는 시를 통하여 달과 구름, 새, 鳳, 秋鴈, 白鹿, 四友 등 자연물을 여과 승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의 自然沒入은 脫俗隱遁과 自然愛를 통하여 유유자적하는 樂道 위에 서고, 無辱에 노니는 神仙이 되어 山林과 江湖를 거닐었다. 孤高寒士의 苦惱가 낀 그의 이색적인 풍류는 참담한 정신세계를 자연으로 승화시키는 風度를 엿보게 한다.

桐溪는 유배에 직면한 自歎의 한계에서 벗어난 寂靜한 詩情에 젖은 은둔, 도피의 세계로 자신을 승차시켰다. 유배생활의 자연은 전원으로 돌아가는 맹사서의 江湖四時歌類의 자연이나 出仕를 마다하고 陶山에 침참하는 이퇴계의 귀거래류의 자연이 아니다. 오직 死地에서 겪는 고독 속에서 자신은 찾는 자연인 것이다.

#### IV. 屈原의 楚辭 受容

中國 先秦時代의 문학은 크게 둘로 나눈다면 「詩經」과 「楚辭」이다. 「詩經」이 北方文學을 대표한다면 「楚辭」는 南方文學을 대표한다. 戰國時代에 나온 楚辭는 楚나라의 인간과 사회, 풍토, 사물 등을 묘사한 초나라 독특한 詩歌文學이다.<sup>81)</sup>

楚辭의 始源者 屈越(BC340~BC290)의 생애는 桐溪 鄭蘊의 생애와 意趣가 비슷하다 충성으로 군왕을 위해 열성을 다해 諫하는 屈原과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랑곳 않고 直諫을 올려 광해군의 정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桐溪다. 政治人이면서 문인인 이들은 時·空을 초월하면서 脈絡을 같이한다.

屈原은 楚王에게 放逐되었기에 楚辭를 대표하는 중국문학의 요람인 「離騷」를 남길 수 있었으며, 司馬遷은 宮刑의 恥辱을 겪었기에 「史記」를 撰述하는 집념을 지닐 수가 있었다.<sup>82)</sup> 屈原은 楚國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굳은 신념을 갖고 강한 조국애에 불타고 있었다. 亂世에도 正義感으로 保身하였으나 악덕 정치가들의 참소로 국왕에게 버림을 받고 원한을 품고 汨羅水에 투신하였다. 이런 屈原과 같이 桐溪는 조정에서 忠諫으로 流配당한 자신이기에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으며 屈原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가지고 동일화한 작품들이 여러 편 보이고 있다. 이는 政界에서 활동당시 창작활동과 비교해 본다면 유배기간은 자신을 침잠시키고 內省의 기회로 삼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하겠다. 屈原의 楚王에게 쫓겨난 슬픔과 憤慨, 이상적인 여인에 대한 동경, 고독감, 조국의 安危에 危懼 및 그의 최후의 절망과 자살의 결심 등이 桐溪 유배생활을 비롯하여 최후까지 흡사한 점이 많다.

81) 李種燦, 《한문학개론》, 二友出版社, 1981. P. 47.

82) 李炳漢,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作家와의 環境의 문제”, 《圓光漢文學》제2집, 원광한문학회, 1985, p. 106.

본 장에서 桐溪 流配漢詩가 屈原의 生活이나 性格面에서 얻은 共感과 作品面에서 用語와 內容上의 受容樣相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桐溪가 살았던 16C말부터 17C는 조선증기로 접어드는 때이다. 선조부터 중기까지는 태평성대의 세월이었으나 16C말에 접어들면서 유교의 교조주의가 휩쓸었다. 政治에서는 당쟁이 심화되어 혼란과 민생고가 극심하였으며 신분제도에서는 서열급고가 더욱 가혹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북인의 추대를 받고 光海君이 등극했던 것이다. 光海君은 당파에 휘말려 臨海君, 永昌大君 獄事, 인목대비 폐비 등의 실정을 역사에 기록했다. 광해군 즉위 후 桐溪는 永昌大君 폐위와 죽기까지에 이르자 일을 바로잡도록 상소를 올렸다. 이것을 계기로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고 반대당의 참소로써 濟州 大靜縣에 위리안치되어 10년이란 기간을 유형수로 지낸다. 이런 유배상황 중에 憂時戀君, 身上歎, 哀訴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

古來로 정치인이나 문인들은 나라를 사랑했으나 時運을 못 타서 참소를 만나 官界에서 쫓겨난다든지 유배를 당한다든지 현실을 도피하여 隱遁한다든지 아니면 憤痛한 나머지 水中의 孤魂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屈原의 行迹을 추모하고 그 문학에 共鳴하여 「籬騷」體를 수용하거나 자신들의 심회를 서술하는 사람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屈原의 풍부하고 화려한 文辭에 끌린 것도 있었지만 고보다도 後世人들이 自己信念이 달성하지 못하고 정치의 불합리와 국가의 위기, 민족의辛苦를 통절히 우려하면서도 자신은 불가항력일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屈原이 강하게 소생했기 때문이다.<sup>83)</sup>

桐溪 작품에서도 이러한 일면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강한 애국심으로 혼탁한 현실에 대한 강직성을 지켜 상소를 올렸음에도 당파의 참소로 인해 군왕의 노여움을 사는 결과가 되었다. 추방당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屈原의 생애

83) 이창용, “매월당의 굴원 수용양상”, 《국어국문학 91》, 제27회 국어국문학 회, 1984. 5. PP. 88~89.

속에서 발견하고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곧 「籬驪」는 屈原의 깊은 苦惱와 絶望의인 憂愁가 서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桐溪에게는 심각한 인상과 憐憫을 안겨주었음을 다음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次林樂翁韻

生涯隣鬼魅	생애는 鬼魅와 이웃하고
身世任乾坤	신세는 건곤에 맡겼네
已撫潘郎鬢	이미 회여진 구레나룻을 만지다
難招楚澤魂	초역의 혼 부르기 어렵네
歸雲頻酒淚	돌아가는 구름따라 자주 눈물 흘리고
坤劍未消冤	문헌 칼 원통함을 다하지 못했네
耳聾不求理	귀가 멀어 이치를 구하지 못하니
愁聞變語喧	오랑케 말이 시끄러이 들리는 것을 근심하네

流配당한 자신의 생활을 鬼魅와 벗어나 乾坤에 맡겨 버리고 있다. 政治의 바른 뜻을 펴지 못한 지 여러 해다. 돌아가는 구름따라 눈물 흘리며 의지가 꺾인 자신의 원통함을 풀 길이 없다. 자연에 맡긴 신세이지만 당파에 휘말려 정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군왕이 근심스러울 뿐이다. 그의 좌절을 楚나라 屈原의 혼을 불러 호소하고자 하나 부르기도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이다.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우수를 「籬驪」의 前半部 內容에서 受容했다고 볼 수 있다. 「籬驪」 전반은 家系와 出生, 타고난 才能 그리고 자신은 임금을 도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 했으나 험뜯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각당했으며, 임금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금 내 마을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슬픈 처지를 哀訴하였다. 屈原이 屈原의 위치를 실현할 길 없어 水中의 魂이 되었으니, 자신의 심정을 달래줄 이는 屈原의 남을 혼뿐이라 여긴다.

屈原을 憂國忠君의 열정을 가진 詩人이다. 美意識의 自尊과 忠貞不仁의 節介를 가진 屈原에게 있어서 現實의 挫折은 더할 수 없는 悲哀였다. 詩人의 진취적인 애국정신은 정치적 좌절로 말미암아 忠君憂國의 열정으로 화한다.

種 芹

淺鑿窓前方寸地	창 앞 좁은 땅을 조금 파내어
貯停滄水種青芹	고인 물에 미나리를 심은 것은
區區不爲供朝夕	구구히 조식 찬거리 하려함이 아니라
得得莖長獻我君	즐기가 길면 우리님께 바치려 함이네

유배된 나그네의 고초를 안은 초라한 신세다. 민감한 外境에의 감정이입을 통해 桐溪가 바라보는 人生의 觀照, 자연애의 親和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戀君에의 사상이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고독과 우수에 찬 유배생활을 뒤로한 채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한 자신의 좌절을 戀君之情으로 溶解하고 있는 것이다. 桐溪의 이러한 면은 屈原의 「離騷」중에 후일을 생각하며 蘭, 蕙, 留夷, 揭車 등의香草를 심어 가꿨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sup>84)</sup>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꺾이고 말았지만 내 한 몬 이리된 것을 슬퍼하겠는가, 다만 악인들로 하여금 어진 신하들이, 마치 잡초로 향초가 거칠어지듯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그렇지만 桐溪는 꺾일 것을 모르는지 미나리를 곱게 심어 넘게 바치겠다는 충군을 보여준다. 屈原이 추방당한 심정에서 배태된 작품이어선지 짝과 色을 느끼는 심정이 桐溪 역시 마찬가지이다.

司馬遷은 「史記」에서 「離騷」에 대해 “文章을 簡潔하고 言語는 微妙하며 뜻은 潔白하고 行動은 清廉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흙 속에 살면서 결백으로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마음가짐을 일월과 빛을 다룬다 해도 좋을 것이다<sup>85)</sup>”라고 하였다.

이같은 屈原의 군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청렴고결한 성격은 흔탁한 속세와 화합할 줄 몰랐다. 다음 桐溪의 작품에서 굴원의 뜻이 재현되어 있다.

84) 宋貞姬譯, 《楚辭》1, 明知大出版部, 1985, p. 45.

85) 司馬遷, 《史記》, 景仁文化社, 1977, p. 623.

初度日吟

孟取貞斗柄	첫 봄에 북두성을 바로하여
庚日夜中央	여름밤 하늘 가운데 있네
暗合靈均降	영균이 내려옴과 합치되니
叨居紫府牆	외람되이 자부의 울타리에 살게 되었네
窮通略同異	궁하고 통함이 각각 서로 다르고
人物判賢狂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판단하네
惟有秋蘭佩	오직 가을 난초만이 고고함을 지너
千年不改香	천년 동안 향기를 고치지 않네

「靈均」은 屈原의 字, “原”의 字意로서 靈은 神, 均是 調(고르다)의 뜻으로 正則, 靈均이라 함은 屈原의 이름 “平”과, 字 “原”의 뜻이다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sup>86)</sup> 「籬騷」 첫 편에 “皇覽揆余于初度今擘兮 錫余以嘉名 名余曰 正則兮字余曰靈均”이라 하여 영균을 설명하고 있다.

頷聯의 紫府牆은 楚辭에 나오는 紫壇으로 자주빛 조개껍질로 깐 마당이다. 結聯의 蘭은 香草로써 충절을 지키는 군자를 뜻한다 하겠다. 이 작품에서 桐溪는 봄, 여름을 지나 영균을 만났으니 화려한 자단 울타리에 살게 되었다고 자신의 불우한 유배생활을 영균을 빌어 역설적으로 미화했다. 時代의 是非의 흐름과 賢臣과 狂臣은 道가 판단하는 것, 나는 오직 가을 난초의 고고함에 의지하여 향기를 잃지 않으리라는 忠節을 다짐한다.

屈原은 고고한 난초 향기 몸에 감고 잡초와 섞이지 않는 청결함을 지닌 인문이다. 屈原의 香草意識은 「籬騷」에 “步余馬於蘭皋兮 馳椒丘且焉止息 進不入以離尤兮 退將復修吾初服”라 하였다. 屈原은 평소에 길러온 忠, 正, 仁, 義의 행위로써 세상에 나아갔다가 버림을 받고, 그제야 잘못 든 길을 깨닫고 스스로 물러가 다시 수신하고자 했다. 높은 冠, 香草 등은 그의 고결한 정신의 상징으로 하여 四海 밖을 멀리 노닐고자 했다. 그러자 그의 고고한 지조를 향

86) 宋貞姬譯, 前掲書, P. 39.

상 염려해온 누님 여수는 조정은에 惡草를 즐겨입은 小人들로 가득한데, 너만이 香草를 몸에 감고 멀리하는가, 조금 뜻을 낮추어 몸 보전하라 당부하나 평생 香草를 바꿀 그가 아니다.

屈原의 香草意識을 桐溪는 “惟有秋蘭佩 千年不改香”이라는 詩句를 통해 사상과 성격의 교류를 보여준다.

至月晦日

此月又云晦	이 달은 또 그믐이라
來春隔幾旬	오는 봄 몇순을 가리웠느냐
甲寅年向盡	갑인년을 향하여 기울었고
巳巳筭添新	巳巳에 새로움을 더하였네
遲暮還丹術	노쇠하여 배 부리는 술책으로 돌아가려는데
蕭疎滿鬢銀	성겨 쓸쓸한 하얀 수염만 가득하네
長沙愁太傳	장사에 귀양간 태부를 근심하네
楚澤怨靈均	초나라 못에는 영균을 원망하네

작품 내용으로 보아 桐溪가 위리안치된 지 한 해를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孤囚의 몸이 되어 멀리 유배온 자신이 첫 해를 보패는 심정을 무엇에 비유해야 알만을까, 다만, 위로한 길 없어 오는 봄에는 노저어 갈 수나 있을런지 성긴 수염이 근심만 가득하다. 結聯은 대신들의 中傷謀略으로 長沙太傳으로 좌천되어 남으로 湘水를 건너다가 거기에 빠져 죽은 屈原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세를 느껴보는 것이다. 洞庭湖 東南에 있는 長沙에 유배가서 방향하던 屈原이 끝내 뜻을 못 이루어 楚澤에 몸을 던졌다니 桐溪 신세가 屈原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자신이 모습을 보는듯 영균의 영혼만을 원망한다. “晦日”은 가장 어둠이 짙을 때로 이때 씨앗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한 겨울에 나온 씨앗이 봄과 함께 새싹이 돋는 것이다. 桐溪의 그믐날의 결심을 다음 해 봄에는 꼭 이뤄 보려는 굳은 의지가 보인다.

이 작품은 「九歌」의 「湘君」과 통한다. 「九歌」는 楚나라 서쪽 南郢의 고을 泣木, 湘水 유역의 고유한 민간 제가를 屈原이 쫓겨난 몸이 되어 이 지방에서

숨어 살다가 가사내용이 지루함을 느껴 改作한 것이라 한다. 「九歌」는 귀신을 섬기는데 공경을 다할 것르 말하면서 자신의 품을 恨을 나타내는 동시에 군왕을 諷諫한 것이다. 屈原이 頃襄王에 대한 忠君愛國의 情을 붙여 노래한 것이다. 湘君이 湘夫人을 부르는 것으로 屈原이 流配地에서 애타게 그리는 頃襄王을 표현하였다. 桐溪는 「至月晦日」에서 내년 봄을 기다리는 심정과 군왕을 그리다 자살한 영군의 혼을 위로하고 있다.

客舍橘林

童童張似蓋	무성한 枝葉은 우산을 펴 놓은듯 하고
密密散成帷	빽빽한 모양은 휘장을 이루었네
翠實初含露	비취빛 열매는 이슬을 머금었고
黃金竟滿枝	황금색이 되어서 가지에 가득했네
楊州包賈遠	양주에서 진상함이 멀고
楚客頌詞悲	초나라 나그네는 글 지어 슬퍼하네
願使邦人重	바라건대 방인으로 하여 조공 보낼 일을 거듭하여
毋令卦植衰	진상 보낼 것을 쇠하지 않게 하소서

桐溪의 五律로 유배지인 제주 경관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제주 명산인 굴에 비유하여 자신의 忠信과 節介를 표백한 것이다. 頸聯의 楊州는 禹 임금 때 굴 진상지로 제주에서의 굴 진상을 양주<sup>87)</sup>의 그것과 흡사하게 표현했다. 굴은 남국의 특산으로 淮水를 건너 北地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된다고 하다. 「九章」은 屈原이 江南의 들에 쫓겨난 뒤 군왕을 생각하고 나라를 근심하여 시름을 누를 길 없어 지은 것이다. 이 중 「橘頌」은 屈原이 자신의 志節을 남

87) 楊州, 제주시 중심에 위치한 觀德亭은 건물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려진 그림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있는 벽화들 중 하나가 <醉過楊州橘滿軒>이라 하였다. 즉 杜甫가 술이 취하여 轎子를 타고 楊州 땅을 지나가는데 美妓들이 그의 모습에 반하여 나무에 달린 꺾을 따 던지는 그림이다. 그러나 두보는 태연히 양주 땅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꺾이 교자에 가득함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조선 성종 때(1486) 지어져 고종(1882)까지 수차에 걸쳐 重修되었으며 1959년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달리 굴에 비유하여 楚國 따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옮겨갈 수 없는 심정을 말한 것이다. 푸른 열매에 머금은 이슬은 透明, 美麗한 意象의 표현으로 시인의 脫俗의 性格과 청결한 인격을 더욱 강조해 준다. 翠實이 黃金이 되어 나라에 진상 보내려 하니 屈原의 슬픈 노래가 더욱 서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진상할 일을 소홀히 말라는 忠君을 屈原는 나타내고 있다. 굴의 덕을 찬양하며 자신을 굴에 붙여 스스로 절의를 지키는 고결한 덕행을 말하고 있다.

聞 潮

海苦有何不平事	바다신은 무슨 불평이 있길래
其聲轟嘩如怒噴	온 소리를 질러 화난 것과 같은가.
逐臣入海已四載	쫓겨난 신하는 바다로 돌아와 이미 네 해를 보냈는데
聞之不怕但驚巾	그 소리도 두렵지 않고 다만 수건을 적시네

起句의 “海苦”는 楚辭「遠遊」篇 “分海苦無馮夷”의 新意다. 海苦는 바다신이다. 바다신은 무슨 불평이 있어서 파도를 요란스럽게 하는가, 그러나 逐臣이 되어 바닷고장으로 들어온 지 네 해를 보내는 桐溪로서는 무서움 보다는 눈물이 먼저 수건을 적신다. 유배온 지 4년이 지났어도 서울에서는 소식이 없는 혼란하고 고독한 자탄을 屈原의 「遠遊」에 비유했다.

屈原의 「遠遊」는 어진자를 질투하는 혼란한 세속으로 말미암아 궁박하기에 이른 자신의 현실을 비탄하다가 세속을 초월하여 長生不死의 선인이 되어 우주 밖을 노니는 일을 노래한 것이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찬 세속의 환란을 피하여 신선에 놀던 일을 부러워하고 덧없는 세월을 탄식한다. 이에 屈原은 공상을 타고 桐溪는 자신의 현실의 깊이 침잠하여 한탄하기에 급급해 있으니 바다신을 빌어 아무리 성낸 소리로 울부짖게 한들 잠시라도 시름을 잊을 심정이 아니다.

屈原은 추방되어 江湖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우수와 탄식으로 그 모습이 아주 변해 있었다. 이때 세상을 피하여 몸을 숨겨 강가에서 고기를 낚으며 혼연히 혼자 즐기고 있던 한 어부가 川澤이 근방에서 屈原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던 것이 서로 응답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에 楚의 屈原을 생각하여 그 문답의 「楚」를 엮어 전한 것이 「漁父」이다.

四季花

舊葉凋零新葉生	묵은 잎은 지고 새 잎 자라서
暫時憔悴忽數榮	잠시 마른듯 하다 홀연 번성하였네
滿枝紅粧輝朝日	붉은 꽃 가지에 가득 아침 햇살 비추니
香氣紛紛襲戶庭	분분한 향기는 집뜰에 가득하구나

위리안치된 뜰 안에 四友가 화창하여 계절마다 푸르렀다. 비록 유배하여 “顏色憔悴 形容枯槁” 「漁父辭」한 자신이지만 자신을 닮으려다 다시 번성하여 紛紛한 香氣를 발하니 자연에 벗어나 살아가고자 한다. 屈原은 방랑하면서 자연과의 交友를 미처 경험하지 못한 때에 이미 四季花를 벗하였으니 유배라는 꼭 같은 상황에 놓인 그들이지만 다른 분위기를 안겨준다.

謝李牧使送秋露全韻

酒滴金盤露	술방울은 금소반에 영롱하고
肴分鮫室瑣	안주는 바다 가운데 진미로다
靈均苦逢此	영균을 여기서 만난 듯하니
骨作獨醒人	한가로이 홀로 깨인 사람 되었네

영롱하고 고고한 향기를 지닌 桐溪의 절의를 보여준다. 바다 속 깊은 곳에서 구한 진귀한 안주와 술을 보냈으니 제주 大靜縣에서 영균을 만난 듯하다. 문득 홀로 깨인 사람이 되었음을 안다. 結句는 바로 「漁父」의 “屈原曰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이라는 屈原의 청렴한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避世隱身하여 강가에서 釣漁自樂하는 어부에게 응답하는 말이다. 혼탁한 현실의 와중에서도 물들지 않고 오롯함을 지녔던 桐溪는 당쟁으로 썩어가는

태를 바라보며 끝내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屈原이 인용구를 반복하다가 逐桐溪의 歷史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싼 값으로 산 땅아지를 어찌 북쪽 하늘까지 타고 길 바라겠는가마는 駑駿이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단련시켜 길들이기에 달렸으니 정성껏 길러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한다.

「九辯」은 屈原의 제자 宋玉의 작품이다. 그는 忠直으로 쫓겨나 충심을 다하지 못하지 못하고 죽은 스승을 애석히 여겨 스승의 뜻을 읊은 것이다. 「九辯」 10절 중에 屈原은 천리마는 덜 좋다고 아니 타고 노둔한 말을 잡고 의젓하게 길는 간다고 하였다. 宋玉이 세상에 천리마는 있지만 말 부리는 사람이 없으니 천리마가 미련없이 훌훌 떠나버렸다고 슬퍼했다. 천리마같은 賢臣들은 몸을 숨겨 있으니 덕을 갖춘 임금이 賢士를 구해야만 비로소 충신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桐溪의 兒馬는 자신이다. 兒馬를 천리마로 기르는 생활을 자신의 유배기간이라 여기면서 덕을 갖춘 어진 임금이 부를 때까지 자신의 덕행을 쌓고 타고갈 말을 훌륭히 키운다는 것이다.

屈原은 公平無私하여 덕있는 자에게 능력있는 자를 보낸다는 對天觀을 가진 臣의 신세가 되었으니 더욱 屈原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는 혼탁한 亂世를 걱정하며 유배지의 어려운 삶을 잊고자 잠지 屈原을 脫俗隱遁의 심정으로 몰입해 본다.

### 養兒馬

賤價求房種	싼 값으로 구한 땅아지
何望冀北空	어찌 북녘에 타고 가길 바라리오
刑疲宜失相	형용은 피로하여 얼굴빛을 잃었으니
蹄窄未追風	말발굽은 바람을 따르지 못하네
駑駿非天品	준마는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거든
調良在養功	단련시켜 길들이기에 있네
殷勤供藜牧	정성되어 말을 먹여
偕入故山中	함께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려다.

桐溪의 歷史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썩 값으로 산 망아지를 어찌 북쪽 하늘까지 타고 길 바라겠는가마는 ※駿이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단련시켜 길들이기에 달렸으니 정성껏 길러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한다.

「九辯」은 屈原의 제자 宋玉의 작품이다. 그는 忠直으로 좃겨나 충심을 다하지 못하지 못하고 죽은 스승을 애석히 여겨 스승의 뜻을 읊은 것이다. 「九辯」章 중에 屈原은 천리마는 덜 좋다고 아니 타고 노둔한 말을 잡고 의젓하게 길은 간다고 하였다. 宋玉이 세상에 천리마는 있지만 말 부리는 사람이 없으니 천리마가 미련없이 훌훌 떠나버렸다고 슬퍼했다. 천리마같은 賢臣들은 몸을 숨겨 있으니 덕을 갖춘 임금이 賢士를 구해야만 비로소 충신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桐溪의 兒馬는 자신이다. 兒馬를 천리마로 기르는 생활을 자신의 유배기간이라 여기면서 덕을 갖춘 어진 임금이 부를 때까지 자신의 덕행을 쌓고 타고갈 말을 훌륭히 키운다는 것이다.

屈原은 公平無私하여 덕있는 자에게 능력있는 자를 보낸다는 對天觀을 가지고 있다. 善惡因果論的 歷史觀을 가지고 현실을 조명한 것이다.<sup>88)</sup> 桐溪 역시 이런 歷史觀을 지녔기에 당시 사회의 是非가 양상을 통탄하면서 屈原이 노둔한 말을 타고 의젓이 떠나듯 떠어난 자신을 언젠가는 천리마를 타고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憂國忠君하는 절개를 고수하는 강직한 정치가이며 문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屈原의 表現形式과 詩의 內容 및 그의 사상이나 생활에서 桐溪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屈原에게서 人間의 人 感化 및 詩文活動에 있어서 많은 示唆를 받았다고 본다. 이는 한결을 나아가 유배문학이 한국문학 발전에 적지않은 자극을 주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朝鮮時代 文學은 거의가 作詩餘興에 의한 산물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유배라는 환경에 놓인 桐溪로서는 군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시를 쓴다는 것

88) 엄관덕, “離騷 研究”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제11권, 제2호, 충남대학교, 1984.

은 作詩餘興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욕구의 발로라 하겠다.

楚辭의 屈原은 한 인간의 불행한 遭遇와 좌절당한 절의를 이상현실을 위한 무단한 노력으로 보여주었다. 屈原의 悲憤感慨하는 문학사상과 天道의 歷史觀이 더불어 桐溪에게서 재현되고 있다. 桐溪 자신의 現實狀況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되 그 속에 잠재한 사상은 屈原의 그것과 호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 V. 鄭蕙 流配文學의 文學史的 位置

漢詩는 그 형식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문학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作詩에 있어서도 換骨奪胎의 기법이 무시될 수 없었다. 또 제한된 詩語로 作家精神의 다양한 표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詩聲이 다른 漢字이지만 일단 익히면 飛潛動植의 숨췌이 音節文字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比興을 자아내어 상승의 표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한 詩人으로서 桐溪의 作品世界는 文學史的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살피는 것이 본 장의 과제이다.

桐溪가 생존했던 조선중기의 漢詩文學의 흐름은 詞章派가 山林派의 대립이 있으면서도 穆陵盛世的 豊雄高華한 꽃을 피운 시기였다. 즉 동방의 儒宗인 李滉과 李珣가 있었으며 四家로서 象月谿澤이라 일컫는 申欽, 李廷龜, 張維, 李植이 존재한다. 三唐詩人으로 崔慶昌, 白光勳, 李達이 二才라 일컫는 李安訥과 權韓과 활동하였다. 이 외에 金尙憲 등의 절의 시문학의 경계를 보여 조선 중기를 드날렸다.<sup>89)</sup> 이런 가운데 한문학은 사대부의 필수교양물이 되었으며 정제 진출의 절대적 수단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문학이 朱子學의 이념에 입각하여 道學과의 융합을 요구하던 가치관에서 드디어 道學派와 詞章派의 분열을 보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조선조 사대부의 지적 전통과 교양이 漢詩에 글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정

89) 이병주, 《고전의 산책》,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 193.

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유배된 사대부들은 自己限界와 自己認識을 漢詩文을 통하여 표출하게 되었다. 즉 유배한시에서는 인간의 심성과 감정을 직접, 간접으로 응축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유배기간에 창작된 작품을 통하여 유배문학의 위치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창작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桐溪는 오랜 세월 동안의 통분과 울분을 가난과 병고의 몸을 이끌고 유배생활을 날날이 詩文으로 표백하고 있다. 뜻을 펴보지 못하고 억눌린 삶을 글을 통하여 자기의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였으니, 桐溪는 유배기간에 남긴 다수의 작품을 통하여 人生의 참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體驗이 思想과 융합되고 詩語를 통하여 形象化된 자가의 성숙을 思想과 情緒가 일체 정제된 流配漢詩를 통하여 보여준다. 詩가 情緒와 韻律로 이루어지며 思想은 情緒로 승화된 때에만 詩의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정서로 승화된 사상은 桐溪의 流配漢詩에서 볼 수 있었다.

桐溪의 유배한시는 현실세계의 陳腐한 삶을 벗어나 審美眼의인 洞察力으로 自然을 바라보고 그 楚辭으로 孤獨한 情況을 달랬다. 또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內面的 深層世界를 잔잔하게 표출함으로써 우수와 연민으로 가득찬 삶을 토로하였다. 남들이 恨歎과 悲痛에 젖어 보내는 유배생활을 극복하고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니, 自歎을 읊은 작품 외에도 脫俗隱遁, 自然閑情, 戀君, 悔鄉 등이 다수 차지한다. 자신의 절망과 좌절의 삶을 생명력 있는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은 그의 문학의 한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불우한 유배생활을 창작한 계기로 삼아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였으며, 유배생활에 직면한 심정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문학적으로 가장 값진 시기를 지냈다. 그는 정치의 이상실현을 좌절당하고 유배지 山林에서 자연과 인정을 통하여 내적성찰과 작품 창작에 몰두하였으니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流配 漢詩의 國文學史的 意義는 詩의 소재와 모티브의 참신성, 건강하고 지적인 인생관, 삶의 진실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통하여 유교적인 전형 속에서도 시의 주제를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丁茶山の 康津 流配 時의 漢詩가 현실을 고발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

나 유배된 처지에서도 주변과 함께 호흡하며 歷史意識을 보여준 鄭澐, 金春澤, 趙觀彬, 趙貞喆 등의 漢詩가 국문학사상 茶山의 그것보다 前代의 것으로 의의를 지닌다.<sup>90)</sup> 桐溪의 歷史意識은 앞에서 보았듯이 楚나라 屈原의 歷史意識과 맥락을 같이한다. 桐溪는 자신의 유배생활을 극복하면서 보다 넓은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독서와 학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험으로 주위의 상황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다.

한 시대를 불행한 遭遇와 좌절 속에 방랑하던 屈原의 삶은 桐溪의 유배적 삶에 투영되고 있다. 우리 문학에서 楚代 屈原이 끼친 영향을 크다. 楚辭를 통하여 나타나는 屈原의 悲憤感慨한 문학사상은 저항을 모르는 굳건한 자세로 無骨이 아닌 철저한 표출하고 있다. 桐溪 역시 유배 초기 절망적인 감정상태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유배생활이 계속되면서 경험과 내적인 성찰을 통하여 慣習化된 詩風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절박한 처지를 스스로 극복하는 충절과 절의에 찬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桐溪 流配漢詩의 비통한 고난에서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 桐溪의 流配生活은 生涯에서 가장 불행하고 한스러운 시기였다. 당쟁의 소용돌이 때문에 囹圄의 신세로 전락한 좌절의 생활이었다. 그는 哀切한 人生을 자탄하면서 시인으로서 자질을 발휘하여 유배의 고충을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유배생활에서 뼈저리게 사무치는 苦衷과 인정과 자여를 느끼면서 주옥같은 작품 창작에 빛을 더하였던 것이다.

桐溪는 三綱五倫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온 儒學者이면 政治家요, 文人이었다. 그의 作品은 宋風의 영향을 받았으며 道學의 실천에 소홀하지 않았니 조선중기 시학의 유배작품으로서의 그의 위치가 확인된다 하겠다. 詩의 본질로서의 道와 氣를 정신적 활력으로 삼아 어떠한 속박이나 氣象을 시에 다양하게 나타내었으며, 詩의 作法이나 技巧에 집착하지 않고 氣를 함양하여 시에 표현함으로써 시의 昌盛한 경지를 이룩하였다.

90) 梁淳瑛, “朝鮮時代의 流配文學研究; 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1982.

## VI. 結 語

이상에서 濟州島 大靜縣에서 10년 동안 유배생활을 보낸 濟州 五賢이 한 사람인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60首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流配文學이란 流刑囚가 流配地를 향하여 가는 移送過程과 流配地에서의 流配的 사실의 直接體驗에서 느낀 感情的 內容 및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文學化한 작품이라고 한정하였다.

2) 桐溪 鄭蘊은 宣祖 2년(1569)부터 仁祖 19년(1641) 사이의 정치가이며 유학자, 문인이었다. 그는 光海君 6년(1614) 永昌大君 죽음이 부당함을 상소하였다가, 광해 6년(1614)에서 인조 1년(1623)까지 濟州 大靜縣에 유배당한 流配人이다.

3) 유배당한 처지이면서도 憂時戀君을 읊은 작품들이 다수 보인다. 桐溪는 忠君愛國의 思想에 근원한 조선시대 전형적인 선비였다. 그는 向主一片丹心하는 忠節을 북두성, 기러기, 비, 서리 등에 기탁하여 표출하였으니, 이는 古典의 世界觀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현실의 이념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념 속에 자신을 내맡기는 유교사회 시대조류의 反映이었다.

4) 문학적 능력과 정치적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桐溪로서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自歎과 哀訴로써 적나라하게 나타내었다. 身上歎과 哀訴는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流配漢詩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을 소재로 한 것 중에서 桐溪의 유일한 벗인 달을 소재로 한 것이 가장 많으며 구레나룻, 북두성 귀뚜라미 등을 소재로 외로운 유배생활의 무상함을 자탄하고 있다.

5) 別離의 痛恨과 情恨을 오직 작품 속에서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유배를 떠나는 과정에서부터 유배생활에 이르기까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향수와



연민을 작품 깊숙이 침착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정화화하여 자연과 인생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으며 근심, 눈물, 한, 이별, 연민 등을 빌어 비극적 체험을 읊은 유배시인이라 하겠다.

6) 유배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自歎과 哀訴의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연에 몰입하는 세계로 들어갔다. 脫俗隱遁과 自然閑情을 읊은 작품에서는 白鹿과 벗하여 仙遊하는 神仙思想을 보인다. 그리고 自然에 몰입하는 人生觀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유배생활을 樂道에서 노니는 江湖思想으로 나타내었다. 孤高寒士의 고뇌와 이색적인 풍류 속에서의 참담한 정신세계를 신선과 강호의 사상으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적 가치를 말해준다.

7) 桐溪의 유배한시에는 杜甫와 屈原과의 교류를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삶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時空을 초월하여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서는 楚辭 屈原의 儒教思想과 屈原의 생활에서 얻은 공감 및 歷史意識의 교류를 여러 작품에서 고찰해 보았다.

8) 桐溪 鄭蘊의 國文學史的 위치는 조선시대 초, 중기 한시문학의 특징인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宋風과 道學을 실천하고 있다. 작품을 통하여 지적인 人生觀을 표출하였으며 유교적인 점잖은 틀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확산시켜 나갔다. 유배생활에서의 善惡因果論的 역사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桐溪가 남긴 그 밖의 文集들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思想과 總體的인 文學世界를 좀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또한 桐溪의 流配漢詩의 受容關係에 있어서 屈原 이외에 杜甫가 隱遁시절 남겼던 작품과의 교류가 눈에 띄는 만큼 이 부분도 다음 研究課題로 미루기로 한다.

Summary

A Study on The Exile-Period Chinese  
Poetry of Cheong-on

*by Ko Chung-woo*

The middle Yi-Dynasty was the age that saw the height of party strife. The party split into Dae Buk and So Buk following the Hideyoshi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reby motivating "Buk in" (literally North People) to enthrone Kwang Hae Gun, which in turn brought about a social and political disorder. During the chaotic and strife-torn period, illustrious officials either rose to the power or suffered an unlucky exile, given by their lord's hatred or betrayal. Furthermore such exiles were usually towards far-off, rarely trodden places, such as islands.

Qualified now as one of five Cheju Sages, Cheong-on (pennamed Dong Kae) was a politician and scholar from the second year, 1569, of King Sunjo's enthronement, to 1641 (the 19th of Injo's period). For his arguments against the unjust execution of a prince, Yeong Chang, Cheong-on was ordered one-decade isolation in Dae Jung Hyeon, Chaju. Examining his 60 exile-period Chinese poems, this study is to survey his literary quality and to assess his pos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Exile literature is defined as an emotional transmission of direct experiences gained when an accused man was en-route to his place of exile, as well as in his isolated life; it can be otherwise understood as that of the spiritual conditions facing such life.
- 2) Cheong-on, as a sufferer, accepted the current ideas of that time as true, and willingly rode on them. In this respect, he was the prototype of Yi-dynasty scholars who had a burning sense of "loyalty and patriotism". That his single-mindedness toward the King was revealed in the forms of 'the 7 stars of the Big Dipper', 'a wild goose', 'raining', 'frost', etc., may be attributed to his classical world-view.
- 3) Very capable in both literature and politics, Cheong-on, in most of his lines, tried to express himself with 'self-grievance' and 'self-pity'. He took his materials from nature, such as the moon, the 7 stars of the Big Dipper, a cricket and so forth, and they are all manifestations of his 'self-grievance' over his frailty in this unfortunate life of exile.
- 4) Through composition of poetry, Cheong-on tried to overcome his ever-emerging feelings in this relation to leave-taking, bitter grief and sense of pity. In this point he was a tragic poet who, by his actual experience, made a short distance between nature and life.
- 5) During his exile Cheong-on hurried to be rid of self-grievance and self-pity, and made himself free of the sophisticated world, retiring to nature and its tranquility. There, he not only showed something of an unworldly man by living an easy retirement in Baek Lok (a pool on the top of Mt. Halla) but also represented natural life with allusion to rivers and lakes in his poetry. Despite the dreary and chilly loneliness and the gloomy reality that he felt in his ironic elegance,

he elevated his life to that of an unworldly man, entrossed in nature. Here lies his importance as a literary man.

- 6) Cheong-on's exile-period poetry reminds one of the poetic atmosphere of the Fu and Ch'u Yaan. This emotional communion beyond time and space results from their similar surroundings. In this chapter, I categorized Cheong-on's sympathy for the Confucianism and private life of Ch'u Tz'u, including his viewpoint on history.
- 7) The status Cheong-on occupi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lies in his realization of the taste for one Chinese country, Song and of moral philosophy as well. In his works, he displayed an intellectual view of life and used his Confucian gentility as an embodiment of truth. The remaining collection of his poems must be studied, in order to understand his ideas and the overall scope of his literary world.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Cheong-on felt during his exile life, I think could be achieved by comparing his exile-period Chinese poetry with that of Tu Fu. This will remain as the topic of further critique.